

# 定慧社

제22호 불기 2544년 겨울호



松廣寺 傳統講院  
송광사 전통강원

## 마음 받을 일굽시다

처마 밑에 놓여 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낙숫물에 산산이 부서지듯이 세월의 무게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아량 속에서 나오는 나눔의 여유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따뜻한 온정입니다.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려워 몸과 마음도 썰렁한 겨울철에는 더욱 간절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우면 온 우주 법계를 다 품지만 한 번 좁아지면 바늘 한 침 꽃을 땅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여유로움이 없어서일까요? 절을 찾는 발걸음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도량을 거닐다 내방객들의 두런거리는 얘기를 듣노라면 힘든 세상살이를 한탄하는 자조 섞인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삶의 무게가 힘겨우면 모처럼 찾았을 산사에서마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상 세계와 아귀 세계의 사람들의 차이에 관한 짙막한 얘기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팔에다 한 길 남짓한 숟가락을 동여매고 똑같은 조건에서 식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천상 세계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떠먹여 주면서 배불리 먹었으나, 아귀 세계의 사람들은 혼자만 먹을 욕심으로 한 술도 입에 넣지 못하고 쪼쪼 굶었더랍니다.

힘들수록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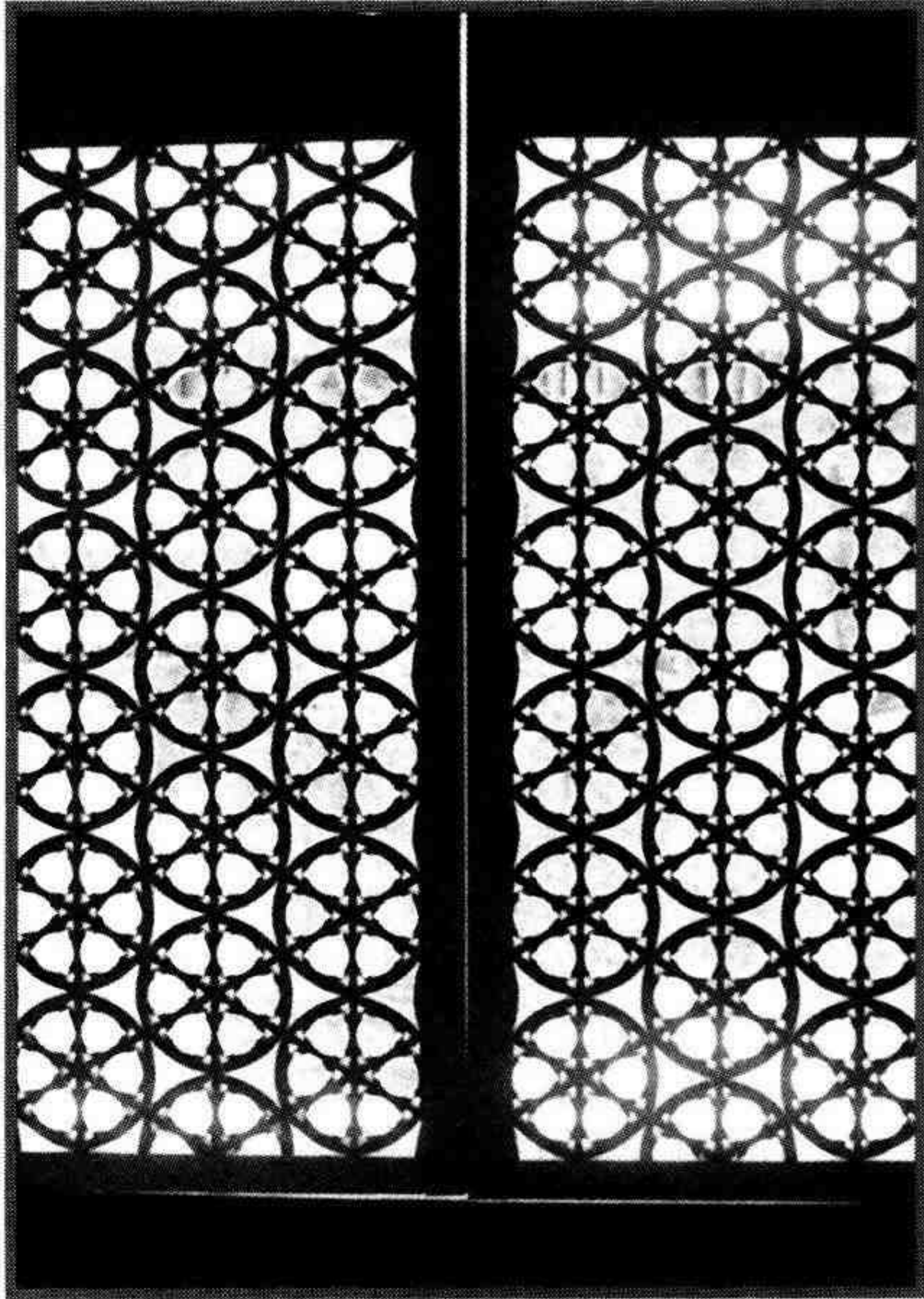
절집에 전해져 오는 속담 중에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국난이 닥칠 때마다 탐사 건립, 경관 조성 등의 대작 불사를 계기로 흠어진 힘과 역량을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갔듯이, 지나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나를 비우는 지혜로 함께 하는 열린 삶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음의 밭에 여러 씨앗 있으니  
비가 내리면 모두 싹이 트리라

# 定慧社

제 22호 불기 2544년 겨울호



조계의 물소리	편집부
사진 속 이야기	편집부 · 2
특별기획	
선호당 상량문	현봉 · 4
교수논단	
그릇된 수행방법을 경계한다	지운 · 8
경전 한구절	오난득(五難得) 편집부 · 15
기획연재	
5세조사 원오국사 천영	편집부 · 16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20
지대방이야기	
어느 날 문득	도현 · 24
상생죽필문	도해 · 26
신발 속 작은 세상	효산 · 29
바느질을 하며	각산 · 31
아, 송광사 강원	흥전 · 32
정혜탐방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편집부 · 34
회광반조	
또 다른 승무	진관 · 40
진정한 고수가 되기 위하여	능원 · 42
세세상행보살도	성경 · 44
그래, 난 중이다!	우성 · 46
바람소리 한자락	
어머님 보세요	현정 · 48
학인단상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에 다녀와서	중현 · 50
산사의 작은 음악회	인성 · 53
정혜사 안내	
신간도서	56
심장병 후원	58
소년소녀 후원	59
편집후기	

발행처/ 송광사 강원  
발행인/ 智雲(講主)  
편집인/ 진관(입승)  
편집장/ 도현  
편집/ 효산, 우성  
사진/ 효산

발행일/2545년 2월 1일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5302

편집·인쇄/도서출판 法供養





네거리 돌사자(街頭 石獅子)

나는 曹溪山 숲 속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오가는 雲水客들의 묻는 말에 應答이나 하고  
東西洋 各國人들이 찾아와 人間의 行路를 물으면  
方向을 가리키며 맞고 보내는 「네거리 돌사자」다.

-九山禪師 法語集 『石獅子』의 서문에서

시·사진 / 편집부

전통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 사라져 가는 이 때,  
모처럼 한 편의 잘 갖추어진 상량문을 만난다.  
날카로운 선사의 기품이 돋보이는 현봉 주지 스님의 이 글은  
한학자(漢學者)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익힌 문풍(文風)이  
한데 어우러져 가히 후학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므로  
이 지면을 빌어 널리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曹溪山 松廣寺 善護堂 上樑文

世上에 수많은 聖賢이 있다 하여도 부처님께 견줄 만한 聖人이 없고  
天下에 名山이 많다 하여도 曹溪山에 비길 만한 勝地가 드물도다.  
이곳 江南의 曹溪山 松廣寺는 山川이 炳朗하여 가히 百世의 터전을 定할 만하고  
風土가 愉淳하여 千代의 計策을 세울 수 있는 萬年不破의 伽藍이로다.  
風吹羅帶의 地勢이니 境界에 얽매이지 않고  
因緣따라 오가면서 隨處作主하는 雲水衲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金鷄抱卵의 形局이니 날개처럼 둘러싸인 산자락 안의 처마 깃 속에서는  
殿堂마다 스승과 學人 사이에 啐啄을 交感하는 聞道의 熱氣가 훈훈하여  
無明의 껍질을 깨 鳳凰같은 高僧大德들이 綺羅星같이 出現하였으니  
東方第一 大伽藍으로 天下에 僧寶宗刹의 休名을 드날렸도다.  
들러싼 뿔부리는 하늘까지 높이 솟아 東西로 해와 달이 번갈아 出沒하고  
四衆이 結社하여 空理를 談論하면 朝夕으로 산 너머 湖水에서 五色煙雲이 피어 오르니  
여기가 바로 壺中の 別有天地이며 華藏世界로다.  
옛 전각의 묵은 香爐에는 언제나 푸른 연기 피어나고  
禮敬하는 梵音이 大千世界에 울려 퍼지며  
雁行하는 法侶들의 袈裟자락 언저리에는 맑은 香氣 바람따라 일렁거린다.  
우거진 대숲은 서리같은 節介를 키우고

드문드문 성긴 소나무는 鶴의 氣品을 기르며

松臺의 바람은 五分의 香氣를 窓戶마다 실어와서 八萬四千의 毛孔을 열어주고

曹溪의 달빛은 홀로 欄干 밖의 시냇물에 달그림자를 옮기면서 肝膽까지 시리도록 밝게 비춘다.

靈泉의 甘露水는 방울방울 三界에 떠돌던 나그네의 목마름을 적셔주고

기슭의 草木은 雪山의 肥膩草에 못지 않아서 白牛를 길들이기에 알맞으니

於乎 여기에 牧牛子의 家風이 永世에 이어지리로다.

海東에 祖道를 中興시킨 普照國師의 定慧結社 精神은 綿綿히 이어와서

三十餘年前에 曹溪叢林이 開設되었고 그동안에 重建重修佛事를 하였으나

近年에 와서 大衆은 더욱 雲集하여 寺勢도 커지고 宗務도 늘어나서

四衆을 受容할 處所가 狹小하므로 寺宇를 增築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에 松臺 아래의 옛 北癸菴 터에 다시 堂宇를 짓기로 하였다.

지난 陰 六月 十二日에 開土祭를 지내고 工事를 始作하여

溪谷을 面한 쪽으로 二十六 坪의 半地下 施設을 하고

그 위에다 定礎하여 五十七 坪의 凸字形 建物を 짓게 되었으며

이번 음력 庚辰年의 冬至月 十三日

曹溪叢林 初代方丈이신 九山大禪師의 忌日을 맞아 上樑하게 되었다.

이 집은 淨戒로 터전을 닦아 禪定의 礎石 위에 기둥을 세우고

智慧의 莊嚴으로 지은 집이니

밖으로는 六塵의 攀緣을 막고 안으로는 矇昧의 妄想을 쉬어

牆壁처럼 안팎을 잘 保護하는 處所이므로 이름을 善護堂이라 하였다.

이 집은 바로 十方의 四衆이 모여 無爲法을 갈고 닦는 三學舍가 아니리오.

이에 들보를 높이 추어올리면서 이를 기린다.

아랑위!

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리니  
號令峰 언저리에 먼동이 뜨면  
밤을 잊고 精進하던 禪堂 안에는  
삼매에서 깨어나는 죽비 울린다.

아랑위!

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리니  
華嚴峰은 虛空 높이 매달려 있고  
五十三 佛祖殿이 거기 있는데  
南巡童子 一百城을 찾아 헤매네.

아랑위!

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리니  
母后山에 저녁노을 감도는 속에  
達摩祖師 신 한 짝이 어데로 갔나  
외기러기 긴 하늘을 울며 흐르네.

아랑위!

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리니  
國師峰 기슭마다 늘어선 祖塔  
저마다 北極星을 떠받들고서  
無憂世界 꾸는 꿈이 비어 있구나.



아랑위!

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니  
佛日은 法界를 널리 비추고  
天龍八部 모여들어 擁護하면서  
때맞추어 甘露비를 내리는구나.

아랑위!

들보를 아래로 들어 던지니  
落霞潭은 거울같이 맑고 맑아서  
늘어선 畫閣들은 밝게 비치고  
齋 올리는 鐘소리가 永劫에 운다.

옆드려 바라노니

上樑한 뒤에 이 道場에 三災와 八難은 永遠히 사라져서  
山門은 肅靜하고 禎祥의 瑞氣는 더욱 뻗어지이다.  
나아가 이 道場에 모여드는 淸風衲子들과  
因緣있는 모든 檀越佛子들과 恒河沙 法界의 限量없는 生靈들이  
다함께 번뇌의 비바람이 새지 않는 無爲舍에 共住하여지이다.

佛紀 二五四四年 庚辰 冬至月 十三日

曹溪 沙門 玄鋒은 삼가 짓고 쓰다.

## 그릇된 수행방법을 경계한다

지운(智雲) / 松廣寺講院 講主

### 1. 불교수행의 기본원칙

『金剛經』에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라 하였다. 모든 존재란 꿈이나 환(幻), 물거품, 이슬, 번개처럼 무상(無常)하고 실체가 없는 무생(無生)이니, 일체법이 유무(有無)로부터 생(生)한다고 믿거나 모든 존재[諸法]의 실체성이 있다고 보는 악견(惡見)을 경책하시는 가르침이다.

또한 『능가경』에서는 “일체법이 오직 마음의 나타난 바[唯心所現]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범부들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상(相)에 집착하는 데서 멀리 떠나게 하고자 일체법이 환(幻)과 같다고 설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불교수행은 이러한 가르침을 전제로 법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존재의 본질을 관(觀)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수승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사상누각과 같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체험이나 깨침은

모두 마음의 조작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혹간에 들려오는 바로는 모 수행단체에서 몸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우주와 하나되어 깨달음을 얻는다는 수행법이 성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몸이나 대상을 영상으로 인위적으로 파괴하거나 없애므로써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행과정에서 몸의 병이 사라지는 등 제반 고통을 소멸케 한다고 하니, 얼핏 들으면 세간의 고(苦)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그럴듯한 수행법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정법을 수행하는 출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히 위험한 수행법이 아닐 수 없다. 바른 깨달음이란 바른 수행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작위적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몸과 대상을 파괴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며, 또한 그 잔혹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올바르다 할 수 있겠는가. 수행의 근본을 모르는 이러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견(惡見)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수행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미 그 길로 들어선 이들도 하루 빨리正道(正道)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릇된 수행방법을 바른 수행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과 그 체험과 바른 깨달음[正覺]을 제시하여 정법을 보호하고자 한다.

### 2. 정법을 벗어난 흑세무민의 수행법

흔히 무명(無明)과 번뇌망상의 불각(不覺)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라 괴로움 그 자체가므로 잘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覺)과 불각(不覺)은 모두 같은 진여(眞如)로, 현실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진여성품의 모습을 무명불각(無明不覺)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무명과 번뇌망상을 소멸시키고 보면 소멸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듯 각(覺)과 불각(不覺)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여의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데서 자칫 번뇌를 끊으려는 그릇된 수행방법이 나오는 것이다. 곧 번뇌가 보리(菩提)요 각과 불각이 다르지 않음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를 끊고 없애고자 여러 작위적인 방법을 쓰는 예가 그것이다.

일례로 벽에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번뇌를 던져 넣거나 용광로를 연상하면서 몸을 태워버리는 상념(想念)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번뇌망상이나 기억을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이므로, 일시적인 심리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지나치면 정신이상일 수도 있다. 없애려는 시도에는 그 이면에 구하려는 마음이 동반되는 것이니, 진여실상이란 구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 자체가 그릇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 그릇된 수행법의 요지는 한마디로 과거의 괴로웠던 생각을 몸 밖으로 던져 없애거나 혹은 생각으로 만든 가상의 칼이나 폭탄으로 몸을 난자하고 폭발시켜서 몸이 사라지는 경험을 통해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어 대각(大覺)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空)의 체득을 영상을 통해 인위적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불교의 최고 지향점인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한 수행법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정법수행의 안목에서 볼 때 그 허점은 쉽게 드러난다.

우선 이러한 수행은 그 방법이 지극히 폭력적이고 잔혹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설사 그 목적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아무리 좋다할 지라도, 거기에 이르는 과정의 수단과 방법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잔혹하고 폭력적인 방법은 그 파괴적 성향이 그대로 습(習)이 되어 몸과 마음에 축적되어 성향화하여 업(業)이 되며, 더욱이 이러한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쓴다고 하니 그 폐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이는 마치 병을 치료하고자 극약을 조금씩 써서 병은 치유된다고 해도, 계속 상복한 탓에 그 극약이 몸에 축적되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과도 같으니, 병을 낫고자 쓴 약이 오히려 병으로 되는 꼴이다.

특히 한창 인성발달에 신경써야 할 초등학생에게까지 이러한 파괴적이고 잔혹한 수행을 시킨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리수행이란 정확한 식견을 가진 선지식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업식(業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이 되니, 마치 장님인 선지식을 만나면 그 선지식에게 배우는 이들이 모두 눈 먼 장님이 되어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으니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수행의 길이란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 빠지지 않고 생멸심(生滅心)으로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욱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옳음과 그름[是非]은 말과 생각을 떠나 실제 체험에서 가려져야 한다. 즉 인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려면 인식과 상응하는 실재대상과 맞추어 보아야 한다. 확인이 되면 그 인식은 참이다. 그러나 말과 생각은 그 대상과 대응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로써 추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은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하늘과 땅만큼 틈이 벌어져서 시(是)와 비(非)로 갈라지는 것이다. 시비분별을 떠나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맞아 옳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법(法)과 지혜(智慧)가 상응할 때이며 이 때 깨침의 체험이 오는 것이다. 오로지 이 체득만이 옳은 것이요(是), 법[眞理, 無常, 空 등]과 지혜가 상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체험이라도 옳다고 할 수 없다(非). 따라서 시비를 가림에 역견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깨친 수행체험을 근거로 기술하고자 한다.

### 3. 불법을 빙자한 수행법과 그 허실

불교수행의 목적은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그 첫걸음은 고의 근본을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고(苦)의 실체를 아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제법실상(諸法實相 : 공, 무상, 무아, 열반)에 대한 확신(確信)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 그것을 확인(確認)해 나가는 삶이 수행자의 길이다. 그럼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생사고(生死苦)를 해결하는 것이 공부의 지향점이요 귀착지인 것이다. 그러나 고(苦)란 몸과 마음과 세계에 대해 ‘나’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실상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일체 모든 법이 다 마음이 지어낸 환(幻)이니 우리는 그 환(幻)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환(幻)인 생각으로 고(苦)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나’니 ‘내 것’이니 하는 것이 모두 몸과 마음을 집착해서 나오는 것이니 환(幻)이요, 환(幻)이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그 환(幻)을 집착하는 데서 몸과 마음과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환인 세계에서 또한 세상의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환이 소멸될 때 비로소 모든 집착의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바로 이 환의 제거에서 시작한다.

『圓覺經』에 이르기를

“선남자여, 저 중생의 환(幻)인 몸이 소멸했으므로 환(幻)인 마음도 소멸하고, 환(幻)인 마음이 소멸했으므로 환(幻)인 경계도 소멸하며, 환(幻)인 경계가 소멸했으므로 환(幻)을 소멸한다는 것[觀]도 없어지니, 환(幻)을 멸한다는 것[觀]이 없어졌기에 환(幻) 아닌 것은 소멸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거울을 닦아서 더러운 먼지가 사

라지니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신심(身心)은 모두 허망한 번뇌로서 이 번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져야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 하였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몸과 마음, 세계가 허상임을 상기시킨 글이다.

『宗鏡錄』에서는 ‘身心俱盡’이라 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사라짐을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듯 몸과 마음을 꿰뚫어 봄[觀]으로써 몸과 마음이 허상이어서 곧 소멸할 몸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아는 것이 수행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불교에서 우려하는 잘못된 수행법은, 생각의 소멸과 몸의 소멸을 이야기하지만 그 근저에 이러한 제법실상(諸法實相)을 몰각하고 오로지 영상을 이용한 폭력적이고 작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상의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내세운다는 점이 불교정법과 확연하게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행법이 불교의 수식관(隨息觀)이나 부정관(不淨觀)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 몸이 사라지거나 몸의 부패에 따르는 벌레가 관찰되는 등의 제반 경계와 비슷하다고 하여 불교수행을 빙자하고 미륵불을 자칭한다고 하니, 불법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불교 수행법과는 그 근본취지부터 확연히 다름을 분명하게 밝혀서 정법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서 불교를 빙자한 그릇된 수행법을 경계하고자 한다.

그들의 수행에는 모두 네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 단계는 지성반(知性班)으로, 눈 앞에 작은 지구(地球)를 그린 후 그 대상 속으로 자기의 온갖 생각을 던져 넣음으로써 내가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소위 우주를 아는 단계(段階)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입성반(入性班)으로, 온갖 잔인한 수단을 다 써서 형상 있는 것은 모두 없앤다. 즉 가상으로 자기를 죽여서 장례까지 치르며 그 죽은 시신을 화장한다. 화장해도 몸이 타지 않으면 망치로 부스거나 냉동하여 부스거나 그래도 안되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서 녹여 없앤다. 그렇게 생각으로 모든 형체를 완전히 죽인 후, 무정(無情)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전인반(全人班)으로, 이 단계는 가상의 칼로 자기 몸을 자르거나 갈라서 상처를 낸 후 몸 속에서 벌레를 잡아 내는 단계이다. 이렇게 자기라는 집착을 없애면 우주가 내 몸 속에 들어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진리 자체가 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대각반(大覺班)으로, 무정(無情)을 딛고 유정(有情)으로 거듭 태어난다. 저 우주가 내 몸 속에 들어와서 우주가 깨어져 안과 밖이 일체(一體)가 되는

단계이다.

지면상 우선 첫 단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단계 지성반의 경계는 눈 앞에 작은 지구(地球)를 그린 후 그 대상 속으로 자기의 온갖 생각을 던져 넣음으로써 내가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우주론을 아는 단계라고 했다.

일별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이 쉽게 지적되는데, 우선 법의 근본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을 소멸하기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습관적인 반복현상이 수반될 뿐이니, 생각을 없앤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의 근본 성질에서 볼 때, 생각이란 결코 소멸시켜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소치이다.

환(幻)인 '나'와 '내것'이라는 집착에서 환(幻)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환을 의도적으로 구태여 없앨 필요가 있을까? 근본을 알면 굳이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며, 法[진리]이란 본래 무소득(無所得)이 근본이기 때문에 얻음도 없지만 버려서 소멸시킬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소득[無常, 空, 無我]의 법을 깨치는 데는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무소득의 법과 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없애려는 것은 얻으려는 마음이 전제된다. 그래서 무소득의 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없애려는 마음이나 얻으려는 마음이 없이 무소

득 상태는 그냥 지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생각이 본래 무소득임을 깨닫게 된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을 관(觀)이라 한다. 그래서 불교수행방법은 관찰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의도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보기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모든 존재는 그것이 우주든 심리적 괴로움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무상(無常) 무자성공(無自性空)이며 무아(無我)이며 열반(涅槃)이므로, 생각[번뇌망상]을 떠나서 불생불멸심인 열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행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면 생각을 던져 없앤다는 방법의 문제점을 찬찬히 살펴보기로 한다.

과연 생각을 몸 밖에 던져서 없앨 수 있을까? 일시적 현상으로 가능하지만 몸 밖으로 던져 없애는 것을 멈추면 앞에 던져 없애던 생각이 다시 살아난다. 폐단은 이것을 계속하면 진짜 생각이 없어진 듯 여겨진다는 데에 있다. 심리적 효과가 대단하여 고뇌하던 문제를 해결된 듯하지만 다시 되살아나거나 정신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 아무리 생각을 던져 없앤다고 해도 일어나는 생각은 끊임이 없다. 첫째, 자신이 먹은 나이 만큼 생각이 쌓여 있다면 자신의 나이만큼 생각을 던져 없애야 하니 문제가 있고 둘째, 나이를 역행하여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생각을

없앤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천수억년 전의 잠재되어 있던 생각을 없앤다면 또한 그만큼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또 마음이 대상과 접촉하게 되면 생각이 일어나므로 대상을 보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

의식상(意識上)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소멸하려면 의식불명, 깊은 숙면, 뇌사(腦死)가 되었을 때다. 뇌가 죽으면 의식이 소멸한다. 의식이 소멸되면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은 뇌세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공(空)을 체험하면 몸과 관련한 감각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관(觀)함으로써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 수행단체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생각으로 몸을 죽이고 버림으로써 완전히 죽여 무정(無情)상태가 되도록 수련한다고 하는데, 첫 단계의 경계와 모순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모두 버린다면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서 인식될 대상인 육체가 허공과 같이 되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두 번째 단계에서 몸을 폭파하고 죽인다면 첫단계는 아직 몸이 남아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생각의 소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거듭 말하지만 생각이란 소멸할 대상이 아니다. 소멸할 대상이 아닌 것을 작위적으로 소멸하려 하니 다시 잘못된 방법만 거듭할 뿐이요, 법의 실상에서는 더욱 멀어지는 위험한 수행법이 되고 만다.

생각의 실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비유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찻잔같이 형상있는 물건을 보면, 변화 없이 고정되어 보이고 만지면 딱딱한 느낌이 실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찻잔을 던져서 깨지면 어떠한가? 깨진 찻잔의 실체는 무엇일까? 형상에 집착한다면 고정된 듯이 보이지만 실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부분에서 찻잔은 끊임없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보이고 실체가 있어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찻잔을 고정되어 있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감각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생각, 즉 상견(常見)이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이 완전 소멸되면 찻잔의 무상(無常)하고 공(空)한 성품을 그대로 관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생각의 본성을 알면 다시 두 번째 단계에서 몸을 죽이는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일단계의 생각을 소멸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굳이 두번째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단계에서 완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더욱이 이 수행단체에서는 네 번째 단계에서 대각(大覺)을 이룬 후에도 다시 상(相)을 파괴하는 연상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하니, 그 깨달음의 정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었다는 것인가? 근본을 알았다면 다시 무자비한 방법을 반복할 필요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 3. 바른 수행법으로의 전환

상념(想念)으로 영상화(映像化)하는 것은 우선 의도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인연의 법칙을 무시한 방법으로써 죽이는 방법이 반복 지속된다는 업(業)의 속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즉 무명과 번뇌망상이란 인과 연이 만나서 생긴 것이며, 인과 연은 동시성으로 시작과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아리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생(生)의 기억은 주객의 인과 연이 상대하여 끊임없이 경험되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 대상을 인식하는 한 계속 쌓이기만 할 뿐, 이를 없애는 방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소멸방식으로는 근원적인 치유란 없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인연이란 불가피한 것이며 번뇌망상 또한 인연이니, 인연(因緣)을 잘라내고 없애려는 것은 진여인 연기 실상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오로지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 인연이고 공임을 관(觀)하면 무명

과 번뇌망상이 모두 법으로 바뀌며 관하는 마음도 보리(菩提)로 깨어나므로 일체의 고(苦)가 모두 소멸되고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 그대로 보리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관(觀)이 아리야식에 이룬다면 아리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업종자(業種子)가 일시에 법으로 전환되어 대원경지(大圓鏡智)를 증득하게 된다. 아리야식이라면 근본무명이 진여실상으로 나타나면서 구경각(究竟覺)을 성취할 것이다. 법이란 곧 무상(無常), 공(空), 무아(無我), 열반(涅槃) 등의 한가지 모습이며 무상(無相)인 진여이다.

본래 진여이며 공이므로 지수화풍사대(地水火風四大, 몸)를 없애어 공함을 깨닫는 것은 없앤다는 의도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 낸 가짜이니 속지 말아야 하며, 본래 공하여 불생불멸하기에 번뇌망상을 의도적으로 없애 불생불멸의 열반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본래 공인 진여, 즉 각과 불각이 다르지 않다는 이치에 맞는 수행방법은 그래서 버리거나 취하지 않고 단지 관하기만 하는 것이다.

진여의 한 모습인 무명과 번뇌망상을 여실히 관하면 절로 사라지고 진여실상이 체득되고, 체득하고 보면 본래 얻을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되니 각과 불각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의 범주에는 감각과 의식상

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의식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생각, 그리고 모태에서 정신과 몸이 생기기 하고 성장 유지,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관장하는 불가지(不可知)의 아뢰야식의 미세한 망념이 있다.

원각경에서 설했듯이 몸이 소멸되면 몸과 관계하는 마음이 소멸하므로 생각 또한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자기의 삶을 작은 점같이 만든 지구를 연상하여 그 속에 던져 넣는 것은 의식 상에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물론 마음이 비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거나 마음이 맑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가지 못한다. 마음을 비우고 맑히려면 또 다시 생각을 밖으로 던져 없애야 하는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잘못되고 불완전한 수행 방법을 바른 수행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업(業)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생각만을 던져 없애는 반복적인 행위는 습관이니 업(業)만을 낳을 뿐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생각을 아무리 밖으로 던져 없애도 과거 무수한 시간 속에 쌓여 있는 생각과 대상을 인식하고 일어나는 생각은 계속되므로 영원히 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잘못된 방법에서 생기는 생각을 던져 없애는 업(業)은 반야지혜로 바꾸어야 한다. 그 방법

은 아주 간단하다. 생각을 밖으로 던질 때 그 생각을 잘 살펴보면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던져지고 있는 생각이 변하고 바뀔을 관찰하고 안으로 나아가 던지는 생각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던져지는 순간의 생각이 무상(無常)함을 관찰하며, 더 안으로 역행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함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 생각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변화 속의 고통은 그 주체가 없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생각이 순간순간 변하면서 실체가 없이 공함을 알아차린다.

여기서 다시 역행하여 생각이 일어나는 곳과 사라지는 곳에 아무 것도 없음을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모든 생각이 그 본성이 자성이 없는 것인 줄 알게 되면 괴로운 생각뿐 아니라 생각에 의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이 모두 소멸한다.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버리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어져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괴로움이 뿔박하지 못한다. 오히려 생각을 수족같이 잘 활용하여 자신과 사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꿰뚫어 생각의 본성(本城)이 무상(無常)하고 공(空)함을 보면 보는 마음이 지혜로 전환되면서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버린다. 즉 자타(自

他)가 모두 공해지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밖으로 던져 없앨 필요가 없다. 일어나는 생각생각이 함께하는 연기실상(緣起實相)의 지혜로 전화되면서 번뇌망상은 즉각 소멸되기 때문이다.

생각이란 의식이 대상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데, 객관이 공해지고 주관의 공해지면 일어나는 생각들이 모두 무상, 공으로 바뀌므로 생각을 더 이상 밖으로 던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무상(無常), 공(空)은 생멸(生滅)하지 않으므로 이를 체득한 상태는 바뀌지 않는다.

이 체험을 관조(觀照)를 통해 의식 자체에까지 나아가게 해야 한다. 생각을 일으키는 주관인 의식을 반조(返照)하게 되면 생각과 같이 허공과 같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의식이 비어 있음을 관조하면 관조하는 마음이 청정하고 허공과 같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되고, 나아가 그 관찰하는 마음의 공함을 보는 것이 지속되면 몸은 눈 녹듯이 허공 같이 비어 버리고 종내는 몸의 본성인 본래 공함을 드러낸다.

관찰하는 마음이 본래 공함에 의해 몸의 공함이 드러나 완전 공하게 되면 의식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몸은 마음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경지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몸의 관찰이 필요없는 것이다. 2단계 이상 4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생각을 관찰함이 쉽지

않다면 불교수행의 관찰대상에 몸(身)·감각(受)·의식(心)·의식의 현상(法)이 있다. 이중에서 몸을 관찰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 밖에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서 신기하기까지 할 것이다. 마치 자기가 우주가 되는 듯한 착각도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은 영원하지 못하여 무상(無常)하고 무자성공(無自性空)이라는 하나의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을 던져 소멸시키는 것은 심리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바른 방법은 일어나는 생각이 연기함을 알고 본성이 공함을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음을 안다. 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괴로움의 꺾박이 사라지고 없다.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번뇌가 아니고 지혜로 전환되어 늘 깨어있는 삶을 영위한다. 설사 과거의 괴로운 일이 기억나더라도 모두 공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 이상 꺾박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2단계 이상 수련할 필요가 없다.

이들의 수행법에서 나와 우주가 하나로 되는 단계가 있다 하는데 마음이 무엇이냐하고 물으면 우주다라고 답할 것이다.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면 모르는 게 없을 터이니, 한번 우주간 행성이 몇 개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라. 대답을 못한다면 진리를

깨뚫어 보는 지혜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대각(大覺)을 얻었다면서 만나는 대상마다(심지어 부모형제까지도) 생각으로 잔인하게 파괴하고 없애는 방법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니,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자비심과 지혜가 구축할 것이니 그와 같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일으킬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의존의 연기실상(緣起實相), 즉 진리를 벗어난 방법이기엔 그 과보는 이루 말할 나위 없다.

유마경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문수보살이 유마힐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유마힐이 답하기를  
“비유하자면 환술사가 자신의 환술로 이루어진 일을 보듯이 합니다. 이처럼 보살은 일체중생을 올바르게 관찰해야 합니다. 문수사리여, 가령 지혜로운 사람은 중생을 물 속의 달을 보듯하고, 거울 속의 상(相)을 보듯하고, 허공 속의 뭉게구름 보듯하고, 신기루를 보듯하고 소리를 따르는 메아리를 보듯하고, 물방울이 처음 생겨나는 순간을 보듯하고, 물거품이 일어났다 꺼졌다하는 것처럼 보고, 파초가 단단한 알맹이를 가진 듯이 보고, ... 돌여자가 아이 낳는 듯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본질적으로 비어 있고 진실로

‘나’가 없고 ‘중생’이 없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니, 중생이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이 중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살이 중생에 대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키는 것이다.

올바른 정법을 수행하면 지혜와 자비가 자연 수반되는 것이니, 지혜와 자비가 없는 이와 같은 수행법이란 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음 움직여  
생각 버리고  
마음 비워 청정타 하여  
우주를 알았다하고  
내가 우주라 하니  
두번째 달인 줄 알지 못하네

버려지는 생각 잘 지켜보면  
무상(無常)하여 환과 같네

버리는 마음 찾아 살피니  
빈 마을에서  
사람 찾는 것과 같아라

처음부터 버려야 할 생각이란  
물 속에서 달 건져  
올리는 것이라네





## 오난득(五難得)

부처님께서 배사리성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성 안의 사람들을 맞아 말씀해 주셨다.

“이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것이 다섯이 있다.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였을 때 만나보기 어렵다.  
부처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의 가르침을 알고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가 설하신 법을 스스로 잘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일처럼 구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불일 보조 국사 이래 대대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를 승보종찰이라 부른다. 면면히 사자상승(師資相承)되었던 16국사의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정혜결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 선양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호에서는 제5세 원오국사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획연재

5世 祖師  
원오국사 천영



스님의 휘는 천영(天英)이고 속성은 양(梁)씨이며, 고종 2년(1215) 을해(乙亥) 6월 13일에 전북 남원군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아명(兒名)은 안기(安其) 또는 안차(安且)이며 자호(自號)는 회당노인(晦堂老人) 또는 자인실주인(慈忍室主人)이고, 자(字)는 내로(乃老)인데 만년에는 자(字)로써 이름을 삼았다. 아버지는 택춘(宅椿)이고 어머니는 김씨이니 황해도 단흥군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 뜻하는 바가 높고 예의 범절에 품위가 있어, 벼슬을 굳이 구하려 하지 않아 향리에 머물며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는데, 스님이 뒷날 선원사주(禪源社主)가 되자 나라에서 스님의 도덕을 기려, 아버지를 임금의 계시는 개경으로 불러 여러 직위를 두루 거치게 한 뒤, 예빈경(禮賓卿) 치사(致仕)에 이르게 하는 은총을 베풀었다.

스님은 타고 난 소질이 영특하고 재기가 발랄하고 뛰어나서, 여덟 살 때 시운(詩韻)을 공부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각각 어려운 운(韻)을 불러 시험하였지만 그 운이 백 가지에 이르도록 조금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붓을 들어 쓰는 품이 마치 미리 지어둔 것 같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신동(神童)이라 일컬었다.

동 16년 곧 열다섯 살 때에 조계 진각국사께 나아가 출가하기를 간청하니 국사께서는 어린 신동의 그릇됨을 짐작하시고 곧 슬하에 거두어 머리를 깎아 주셨다. 이로부터 삼장(三藏)을 배우는데 문리에 밝아 한번 눈에 거친 경론(經論)은 모두 외우는 것이어서 가르치는 스승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동 20년(19세)에 담선법회(談禪法會)에 나아갔는데 동료들이 스님을 추거(推舉)하여 상수(上首)로 삼았다.

동 23년에 선선(禪選) 상상과(上上科)에 급제한 스님은 곧 명진(名塵)을 버리고 석장(錫杖)을 벗삼아 남방으로 향하시니, 마침 조계산에서는 청진국사가 스승인 진각국사의 대를 이어 크게 법석을 펴 대중을 제도하시므로, 이 소식을 들은 스님은 삭발 본사로 행장을 돌리시었다.

청진국사를 뵈고 법요(法要)를 물으니 국사는 스님의 그릇이 될 만함을 이내 알아보고 상승법문(上

乘法門)으로써 제접하시니, 이로 인하여 스님은 혜해(慧解)가 더욱 밝아졌다.

스님은 또 진명국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그 법을 이어 받으니, 이를 계기로 도의 심지(心地)가 더욱 깊어져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까지 그 이름을 날리었다.

동 33년(32세)에 주국(柱國) 진양공(晉陽公-최우)이 선원사(禪源社)를 창건하여 선회(禪會)를 크게 베풀고 주상께 여쭙으니 이에 중사(中使) 김거경(金巨卿)에 명하여 수선사의 진명국사를 맞아 청하여 법주를 삼고 아울러 나라안의 이름 높은 스님 3천명을 소집시켰다. 그 가운데 스님도 또한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는데, 이에 조정의 공경대신과 사대부들이 스님을 높이 받들었으며 진양공도 스님을 존경해 마지않더니 주상께 천거(薦舉)하여 스님에게 삼중대사(三重大師)를 제수 하였다.

동 35년에는 다시 선사(禪師)를 천거(薦舉)하여 단속사 주지에 임명케 하였다. 이듬해 진양공은 창복사(昌福寺)를 창건하여 낙경회(落慶會)를 크게 베풀고 스님을 주맹(主盟)으로 삼았으며, 동 37년에는 주상이 스님에게 명하여 선원사주(禪源社主)를 삼았다.

이듬해 주국(柱國) 최항(崔沆-진양공의 아들)이 보제사(普濟寺)에 별원(別院)을 창건하여 구산선려(九山禪侶)를 초대하여 모이게 하고 스님을 주맹(主盟)으로 삼았으며, 동 39년에는 청진국사가 입멸하셨으므로 주상이 진명국사에게 명하여 조계산주(曹溪山主)가 되게 하고 스님을 선원사 법주로 삼았다.

동 43년(42세) 가을에는 진명국사가 물러나 쉬기를 청하면서 스님을 추거(推舉)하여 대신하도록 했는데, 주상이 스님에게 명하여 조계산을 맡게 하고, 대선사(大禪師)를 제가(制加)하였으며 특별히 궁궐로 맞아들여, 손수 음식을 베풀어 공양 올리고 중사 한영(韓瑛)에게 호행(護行)을 명하였다.

6월 28일 배편으로 남하하여 9월 19일 조계에 도착, 종강(宗綱)을 크게 떨치니 이에 사방에서 운수납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불일(佛日)이 다시 빛나게 하였다.

生也如着袴  
 死也如脱裙  
 那個是着脱底人

태어남이란 마치 바지를 입음이요  
 죽음이란 마치 치마를 벗음이니  
 어떤 것이 입고 벗는 사람이고?



동 46년에는 고종이 승하하시고 원종이 대를 이어 보위에 올랐는데 스님에게 베푸는 은총(恩寵)이 더욱 두터웠다. 또한 충렬왕의 왕후 원성공주는 불법을 깊이 숭신(崇信)하여 스님에게 특히 예문(禮問)을 두터이 하셨다. 주상이 일찍이 시 2수를 짓고 친히 써서 보족(寶簇)을 이루어서 스님에게 기증한 바 있는데 그 시는 이러하다.

千里曹溪月 依然照九重  
 天傳眞面目 何更接音容  
 師是南陽後 朕曾唐帝孫  
 願將調御問 稽首欲重論  
 黃雲章寶札 照映林壑實  
 천리 박 조계의 달이  
 의연히 구중궁궐에 비추도다  
 하늘은 참면목 전하는데  
 어찌 다시 음성과 용모를 접하리?  
 스님께선 남양의 후손이고  
 짐은 일찍이 당제의 손자로세  
 원하노니 부처님의 물음을 가져  
 머리 숙여 거듭 논하고자 하네  
 누런 구름은 보찰의 글장이라  
 숲 우거진 골짜기를 비추나니

이 시는 주상께서 스님을 존경하고 아낀 나머지 전례(前例)에 보기 드문 남다른 은총을 내린 것이라 하겠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경사(京師)로 맞아 주상께서 몸소 스승에게 올리는 예(禮)를 드리고자 하여 중사(中使)를 보냈으나, 스님은 늙고 병든 것을 빙자하여 굳이 사양하실 뿐 아니라 마침 국가에도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이뤄지지 못했다.

스님은 내전(內典)·외전(外典)에 두루 정통하여 저술한 바가 호방(豪放)하고 담대(膽大)하며 그 뜻이 깊고 넓은지라, 고대의 작자에도 비교할 만한 이가 드물었다.

또 필법(筆法)에도 정통하셨는데, 초서를 특히 잘 쓰므로 원근의 사대부들이 다투어 구하여서 익히기에 힘썼다.

스님은 타고난 기품이 연심(淵深)하고 노니심에 관유(寬裕)하여,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상줄지언정 평생을 두고 폭언을 하는 일이 없으셨으며, 또 관후(寬厚)와 자애(慈愛)로써 그 도제(徒弟)들을 순순히 달래고 이끌었으므로 그 문도의 몸가짐이 공손하고 삼가하여 모두 당대의 영준(英俊)이 되었고, 총림의 표준이 된 이가 적지 않았다. 또 종실(宗室)·귀척(貴戚)·경사(卿士)·대부(大父)·이종석덕(異宗碩德)까지도 다투어 달려와서 참례

(參禮)함이 못 새들이 봉황에 귀의하는 것과 같아서 도제의 성(盛)함이 그 당세에 비교할 바가 드물었다.

스님은 흥복(興福)에도 부지런하여 중창(重創)한 가람이 매우 많았는데 그 가운데 특수한 것만을 들어보면 보성의 대원사(大原寺)와 고흥의 불대사(佛臺寺) 중창 등이 있다.

충렬왕 12년(1286) 2월 12일에 청을 받아 불대사에 이르러 장로(長老)를 불러 이르기를

“이 늙은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그대들은 잘 살아라.”

이어 지필(紙筆)을 청하여 ‘국왕에게 올리는 글’ 및 ‘염승익(廉承益)·홍자번(洪子藩) 두 재상에게 보내는 글’을 쓰신 후, 삭발하고 법의를 갈아입으시고 소선상(小禪床)에 걸터앉았다.

이에 어떤 스님이 나와 묻기를  
“목우자(牧牛子)는 불매일착자(不昧一着子)라 이르셨는데 화상은 도리어 불매(不昧)합니까, 매(昧)합니까?”

스님이 이르되  
“昧하고 不昧함은 모두 저 일을 간여하지 않느니라.”

또 어떤 스님이 묻되  
“환신의 꺾데기를 벗어버리면 어느 곳을 향하여야 서로 보게 되리잇고?”

스님이 이르되  
“나에게 도를 물어 구하거라.”

하시고 다시 이르되  
“때가 장차 이르렀으니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하지 말라. 태어남이란 마치 바지를 입음이요 죽음이란 마치 치마를 벗음이니 어떤 것이 입고 벗는 사람인고?”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 이르되  
“보지 못했는가? 목우자께서 ‘천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느니’ 하고 이르신 것을...”

有僧出問 牧牛子道 不昧一着子 還不昧也無  
師云 昧與不昧 總不干他事  
又有僧問 脫却殼漏子 向什處相見  
師云 問求道吾去

復云 時將至矣 不須多語  
生也如着袴 死也如脫裙 那個是着脫底人  
良久云 不見牧牛子道 千種萬般 總在這裡

이 말씀을 끝으로 박연(泊然)히 입멸하시니 향수(享壽)는 72세이고 법랍은 57쉴이며 조계산에 주석(住錫)하심이 무릇 30년에 이르셨다.

동월 29일 문도들이 색신(色身)을 받들고 동군 관내 두원현(豆原縣)의 동쪽 봉우리에서 다비한 후 그 유골을 수습하여 3월 6일에 조계로 모셔왔다. 주상이 부보(訃報)를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시며, 통예 문통사사인(通禮問通事舍人) 강취(姜就)를 이익배(李益培)에게 보내어 뇌서(誄書)를 갖추게 하고,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國師)라는 시호(諡號)를 내리시어 어필(御筆)로 시축(諡軸)을 쓰신 후, 일관(日官) 정문(正文)·춘관(春官) 서영(瑞英)을 보내어 문도(門徒)에게 내리시고 두 관원으로 하여금 상사(喪事)를 감호(監護)하게 하셨다.

6월 9일 대원사의 서쪽 등성이에 탑을 세웠는데, 무지개가 홀연히 조계의 남쪽 봉우리에서 뻗어 탑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탑의 앞산 봉우리에서 뻗어 탑에까지 이르러 두 무지개가 한데 어울리는 것이었다.

문인(門人)들이 취봉대선(鷲峰大禪), 몽암명우(蒙庵明友)의 지은 행록(行錄)을 갖추어 조정에 나아가 비 세우기를 청하니, 주상이 재가하시고 이익배(李益培)에게 명하여 비명(碑銘)을 짓게 하셨다. 이에 사법제자(嗣法弟子) 충지(冲止)는 교(敎)를 받들어 석재(石材)를 준비하고, 문인(門人) 만연사주(萬淵寺主) 대선사(大禪師) 굉묵(宏默)은 교(敎)를 받들어 비문과 전액(篆額)을 쓰고, 청만(淸滿)과 진적(眞寂) 등은 새긴 후, 고흥군 팔영산(八影山) 불대사(佛臺寺)에 건립(建立)하였는데 임진왜란 당시 병화로 인하여 모두 불타 버렸다.

스님의 문도로서 한 산중의 종사가 된 이로는 원감충지(圓鑑冲止)·굉묵(宏默)·몽암명우(蒙庵明友)·굉소(宏紹)·영소(靈紹)·신화(神化)·신정(神定)·혜감만항(慧鑑萬恒)·자원(慈圓) 등이 있었다.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7월 23일 ~ 30일 무차천도법회

극락왕생하소서!

강원 스님들의 수고를 빌어 지장전에서 일주일간의 무차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망부모로부터 수자령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한 발원의 시간이었습니다.



### 8월 13일 장학금 수여식

하안거를 마무리하며 전반기 모범수행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행의 척도를 등급으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 9월 29일 효봉사님 추모법회 및 효봉영각 상량식

조계총림 방장 스님, 회주 스님, 율주 스님, 원로의원 성수스님, 원효종 종정 법홍스님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효봉사님의 행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실되었던 효봉영각을 복원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상량식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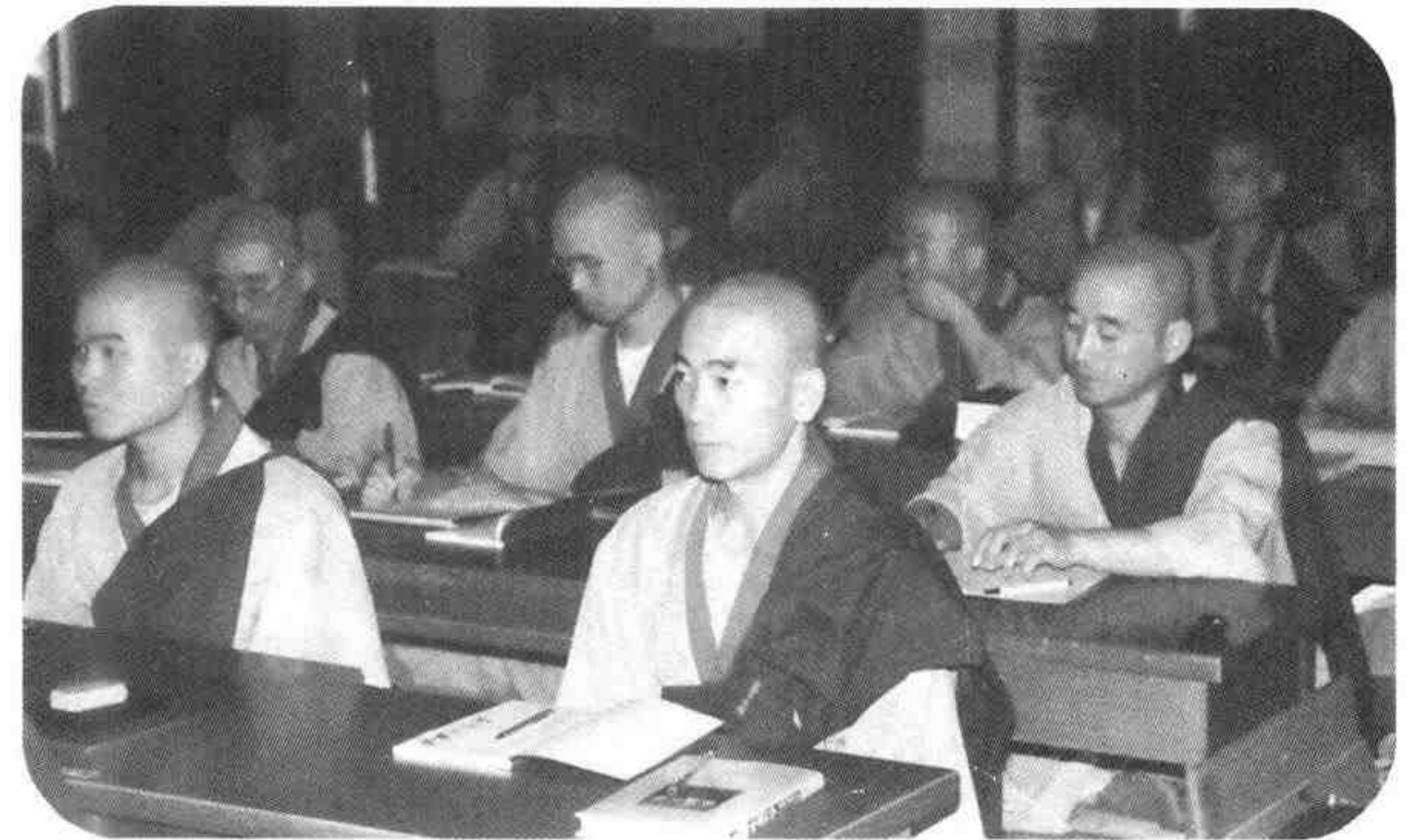
10월 4일 ~ 10일 구족계 수계산림

계단의 원로 대덕 스님들이 모두 참석하신 가운데 제 2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무사히 회향하였습니다. 제방 강원·선방 등에서 정진하던 150여 명의 스님들이 일주일간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구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특별구족계와 식차마니계도 함께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10월 10일 ~ 14일 유식 특강

금강선원 선원장이신 혜거스님의 유식 특강이 있었습니다. 유식을 공부하면 사람이 유식해진다던데, 아직도 깜깜한 마음을 벗어날 길 없습니다.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와 버렸는지...



10월 23일 ~ 24일 전국 승가 학인대회

제 11회 전국 승가 학인대회가 양산 통도사에서 열렸습니다. 첫날밤의 연극에서 웃다가, 축구에선 아깝게도 울었습니다. 즐거움이나 안타까움은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남겨두고, 돌아가는 길에는 잔잔한 미소만 가득합니다.



11월 10일 동안거 결제

60여 강원 대중과 40여 선원 대중, 그리고 울원과 중무원을 포함한 120여 명의 사부대중이 9순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물리남 없는 용맹심으로, 이 안거가 끝나기 전 깨달음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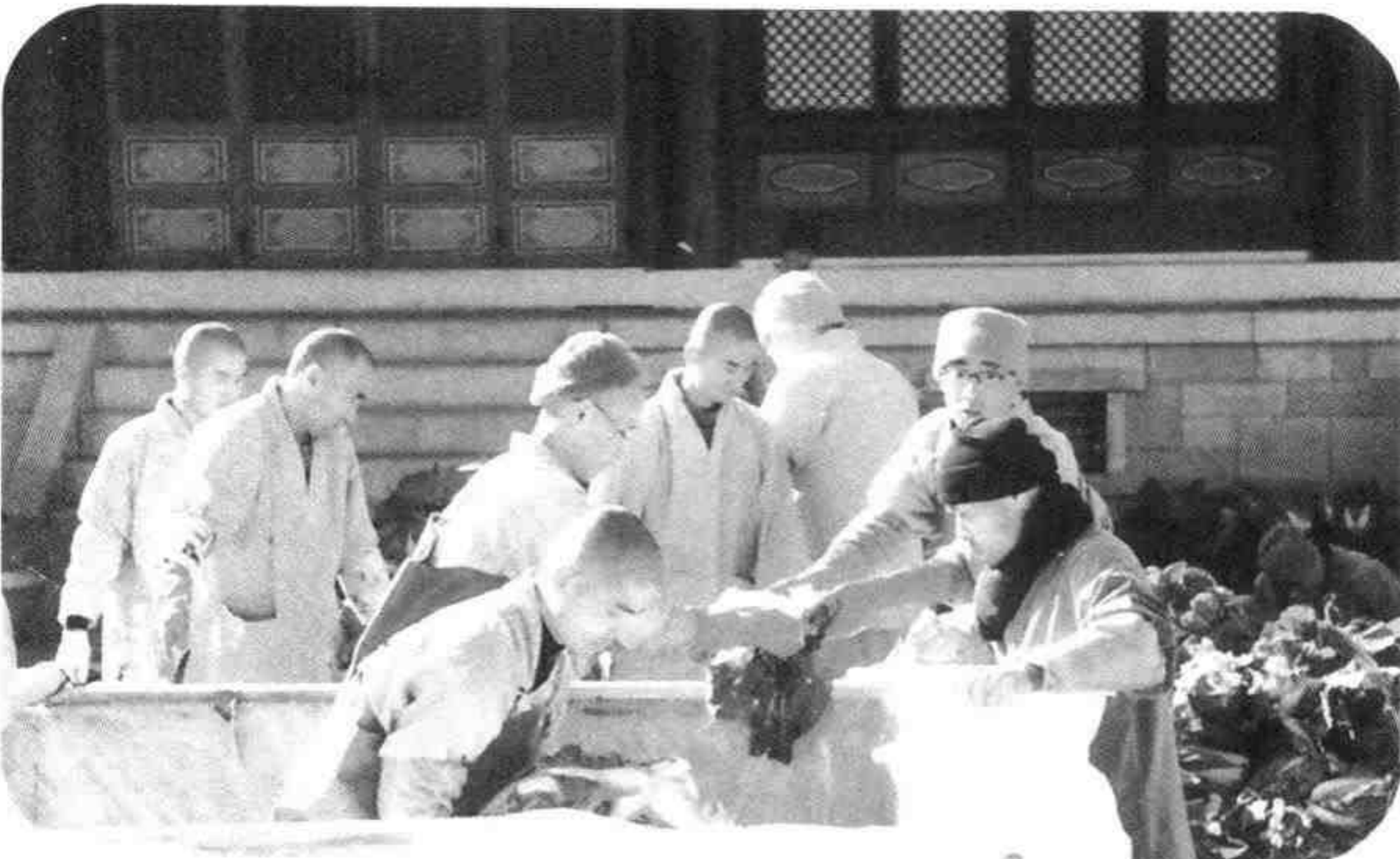




11월 20일 나왕 케축 연주회

티벳 출신 명상음악가 나왕 케축의 연주회가 사자루에서 있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날,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11월 27일 ~ 28일 김장 울력

강원 선원 울원 등에서 정진 중인 120여 대중들이 모두 나와 김장 울력을 했습니다.

묵직하게 속이 찬 배추를 뽑아다 소금에 절이고, 산골 짜기 시린 물로 소금기 씻어내니, 노랗게 드러난 속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겨울 한철 나기 위한 절반의 찬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12월 5일 불조전 오십삼존불 이운

불조전 변화불사로 지난 3개월간 성보박물관에 옮겨 전시했던 오십삼존불이 새로 지붕을 얹고 깨끗하게 단장한 옛 보금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힘겨운 울력 도중 짬을 내어 한 컷.

어느 것이 산 부치고 어느 것이 돌부처인가?



12월 6일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이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 이후, 새 천년에 길이 남을 대작불사를 직접 친견키 위해 대중들이 모두 서울로 향했습니다.



12월 8일 구산스님 추모법회 및 선호당 상량식

조계총림 초대 방장이신 구산 수련선사의 17주기 추모법회가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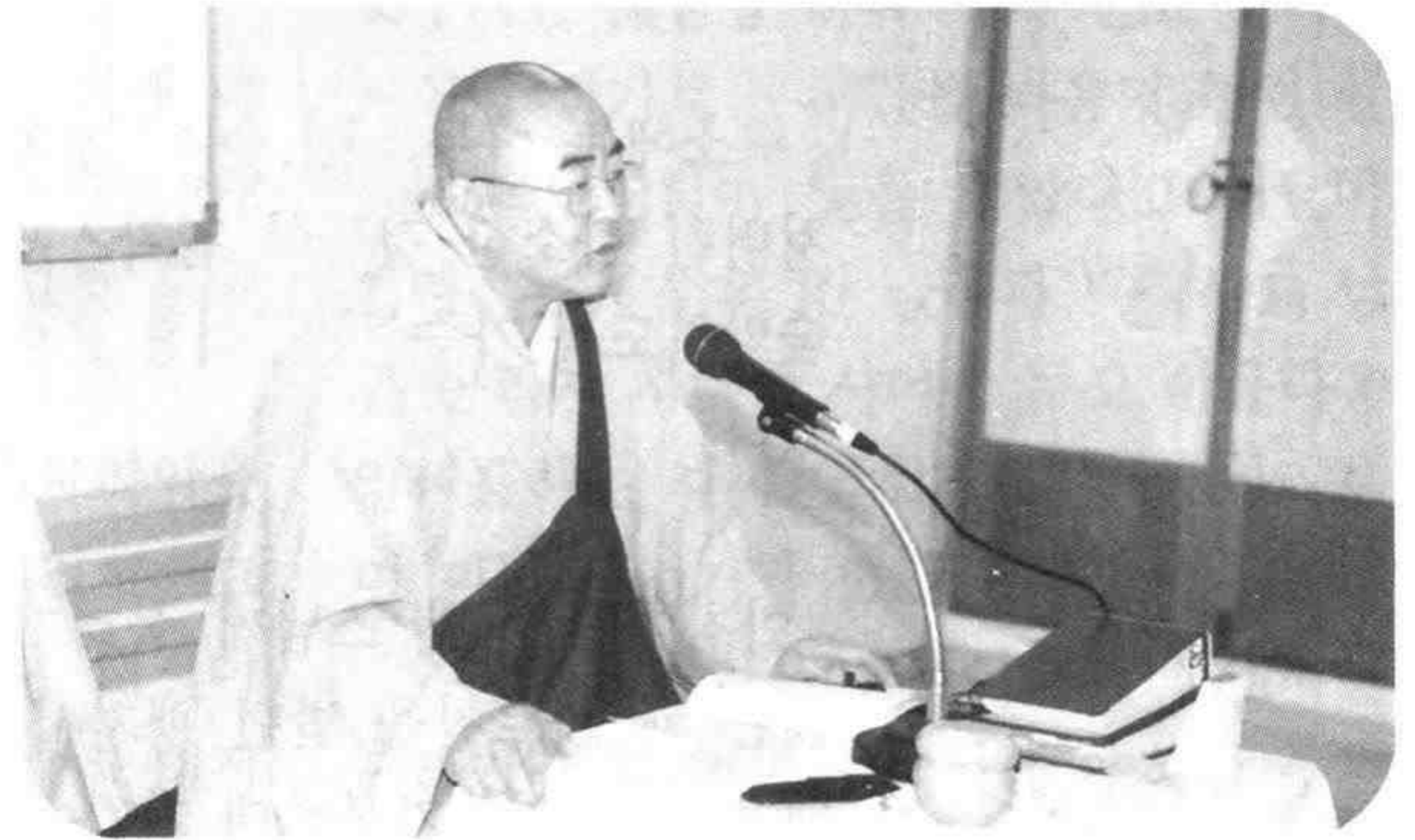
300여 대중이 모여 치러진 이번 행사는 탑전에 모셔진 스님의 부도 적광탑을 참배한 후, 옛 북계암 터에 새로이 신축하는 선호당의 상량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호당은 종무소 요사채로 쓰일 예정입니다.



12월 14일 ~ 17일 선학 특강

동국대학교 정각원장이신 성본스님의 선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조계사 간화선 대토론회, 고불총림 무차선회 등에서 '간화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셨던 스님을 모시고 무자(無字) 화두에 관한 열띤 토론을 하느라 강의시간 내내 열기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12월 20일 동지 팔죽 응심이 울력

기나긴 밤의 한 허리를 잘라내어 팔죽에 들어갈 응심을 빚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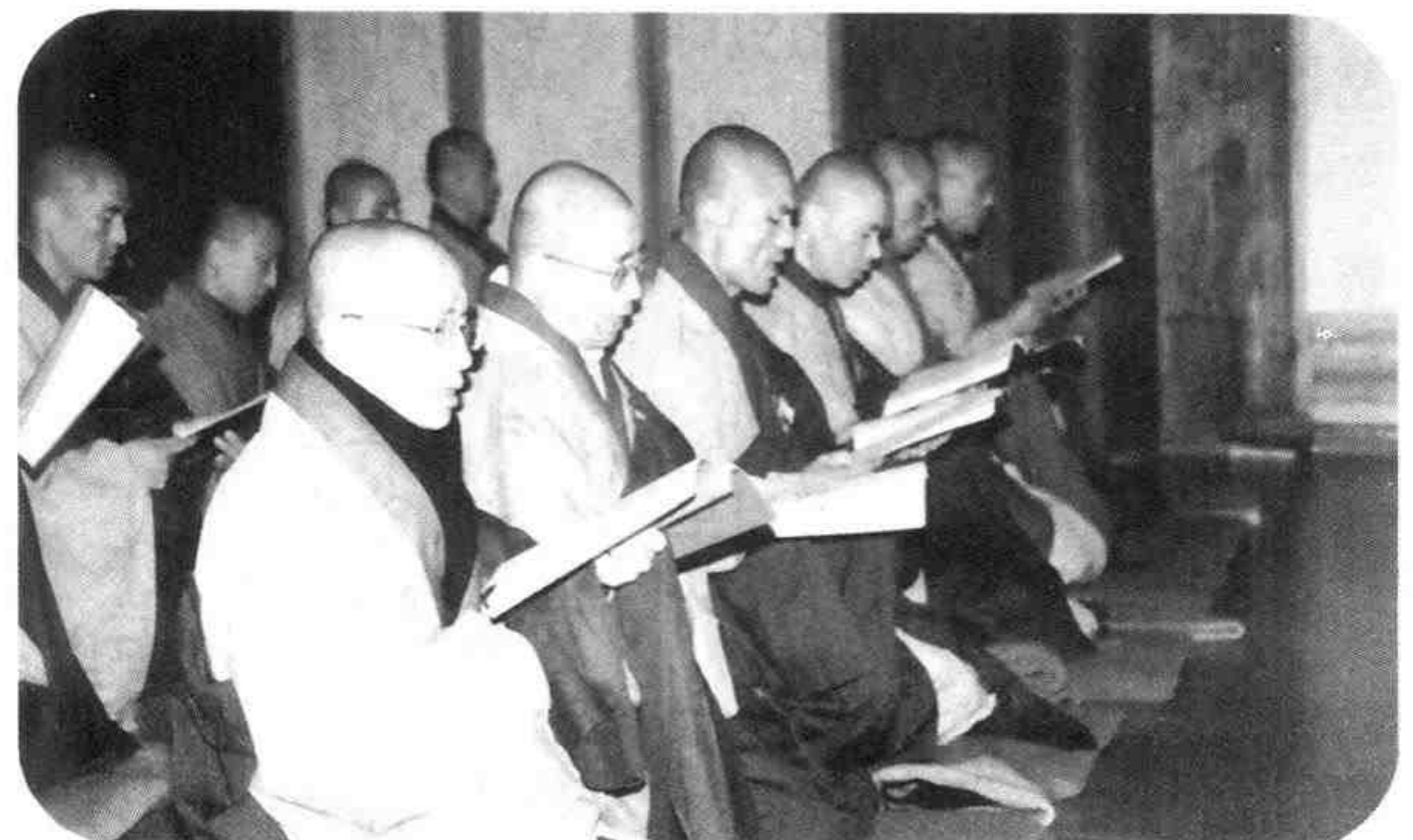
크고 작고 각기 생긴대로 다르지만 모두가 한 솥에 들어가 맛있는 팔죽이 되어 나오겠지요.



12월 26일 ~ 1월 1일 성도재일 가행정진

성도재일을 앞두고 자비도량참법과 금강경 독송으로 참회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상·중·하권으로 나누어 6일 동안 두 차례 실시한 자비수참을 마지막날 금강과도 같은 견고한 발심으로 회향하였습니다.



## 어느 날 문득

도현(道現) / 사집

## 1. 바람이고 싶어라.

평소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버린 사소한 것들이 갑작스레 떠올라 숨막히도록 가슴 한 구석을 조이는 때가 있다.

아침이면 주지 스님께 불려가 무릎을 꿇은 채 가르침을 받던 행자시절. 어제 배운 것도 가물가물한데 거기에서 몇 줄 더 외우란다. 날이 갈수록 외울 수 있는 양은 거꾸로 줄어만 들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구 다그치기만 하는 주지 스님이 얄미울 뿐.

홀로 용감하게 주지 스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도대체가 공부가 안됩니다.”

“너 올라온 지 얼마나 됐나?”

“예, 5개월 짜입니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공부가 안 돼서 저 냇가에도 풍덩 뛰어들고 그러던 때가…….”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그만 내려가란다.

조용히 물러 나오긴 했지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한 번 시작된 의문은 끝없이 꼬리를 물

고 이어지고, 순간 막연하게 폭포에 올라가면 좀 가라앉을까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래, 가보는 거야.’

뒷일은 걱정도 안됐다. 부처님께 마지 올리는 것도 잊은 채 무작정 산길을 걸었다. 40분쯤 걸었을까?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힐 즈음 ‘불일폭포’에 다다른 나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갑갑하기만 했다. 숨을 쉬고 싶었다.

‘그래, 파란 하늘을 보러 가자.’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려 올라갔다. 푸른 하늘이 보일 때까지. 1시간 30분. 아무 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는 탁 트인 하늘을 보았다. 그냥 눈물이 났다.

제대하던 해였나 보다. 후배들이 지리산 등반을 한다기에 동행한 적이 있었다. 화엄사계곡을 타고 눈썹바위를 지나 힘들게 오른 노고단에서의 첫날 밤. 설핏 든 잠에서 깨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깊은 밤하늘에선 영롱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난 그 별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다.

처음으로 은사스님께 인사드리던 날, 스님께서서는 ‘이곳은 공부할 만한 곳이 못 되니 지리산 쌍계사로 가라’ 하셨고, 순간 노고단에서 별 속에 묻히던 그 날이

떠올랐다. 만약에 그곳이 '지리산'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지금쯤 나는 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산에서 태어나

산이 좋아

산으로 들어간 사람.

나는 그렇게 바람이고 싶었다.

## 2. 바다가 보고 싶어서...

일렁이는 파도와 하얀 갈매기. 거센 바닷바람이라도 맞으면 속이 좀 후련할까?

함께 공부하는 스님이 사는 고성 문수암에 들렀다.

신라의 거성 의상대사가 남해 보리암을 찾아가던 중 객점에 머물게 되었고, 그 날 밤 꿈속에 한 도인이 나타나 '내일이면 귀한 손님이 찾아 갈테니 융숭한 대접을 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다음날 아침 찾아온 거지 두 사람을 대접했더니, 휘적휘적 산길을 걸어 올라온 두 거지가 문수·보현 보살로 화하여 석벽지간(石壁之間)으로 들어갔다는 설화가 있는 그곳에선, 징검다리를 놓은 듯 연이은 남해의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며칠 더 묵어가도 좋다는 도반 스님의 웃음 섞인 권유를 뒤로 한 채 한 발 더 바다에 가깝게 다가갔다. 효봉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화사와 미래사를 참배하고, 다도해 가운데 외롭게 핀 한 송이 연꽃 섬을 향해 정기여객선 바다랑호에 몸을 싣는다.

연화도 연화사.

섬 안에 어떻게 이런 절을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주는 절의 뒷편으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섬의 정상에 있었다. 그곳에서 저녁 노을과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기 위해 몇 번을 오르내렸던가? 마치 어린 왕자가 석

양을 보기 위해 의자를 옮겨 앉는 것처럼.....

섬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정상에서 물끄러미 바다를 응시한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만년을 떠올려 보고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부지런해야 하리' 다짐해 보건만.....

이른 아침 환하게 밝아오는 태양은 저물 녘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솟구치는 젊음을 하나 가득 안고 돌아와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렸다.

옆집의 암탉이 알을 낳았다고 덩달아 기뻐하는 수탉의 긴 울음과 타작하고 남은 콩각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옹다옹 입씨름하는 새끼 염소의 재롱을 바라보며 마냥 즐겁기만 했던 오후.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라며 섬에서는 귀하기만 한 차까지 대접해 주시던 주지 스님은 얼핏 공부하던 때의 이야기(통도사에 사시던 경봉 노스님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다.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도둑놈. 지 공부는 안하고 남의 공부 훑치러 온 놈. 당장 돌아가라.”

일언지하에 물리치고는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노스님을 다섯 번째 찾아갔을 때였던가?

“저 도둑놈, 또 왔네. 에이, 귀찮은 놈. 거 마루에 물이나 한 대야 떠놓고 올라오너라.”

‘이번엔 무슨 말씀인가 해주시겠지’ 잔뜩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막상 노스님께서 묻는 말은

“은사스님은 누고? 고향은 어디고? 나이는?”

겨우 몇 가지 물으시고는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이

“됐다. 그만 가 봐라. 가다가 그 세수  
대야나 한 번 쳐다보거라. 보이냐?”

“예?”

“잘 봐라. 그 놈은 고요하면 비치게 되  
어 있다.”

물끄러미 물에 비친 그림자를 들여다보  
는 스님에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만  
가 봐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 마음 속에 불  
던 바람은 어느새 잦아들고, 이제는 어  
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부는 날에  
바다를 보러 갔다가  
바위를 안고 돌아오다.

.....

## 想生竹筆文

도해(度海) / 치문

AM 02:30

깜깜 · 고요 · 적막 · 조용.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 새벽에 조  
용히 일어나 행여나 큰방 스님들이 깰까  
봐 조용조용히 각단 청수물을 준비하고,  
행자님은 벌써 일어나 큰 법당에서 예불  
준비를 하고 있다.

온 대지가 잠자고 있는 이 적막함 끝에  
서 조그마한 움직임으로 먼저 깨어 있는  
도량석 스님과 행자님.

AM 03:00

.....

점점 커지는 목탁 소리에 도량석은 시  
작된다.

“저-엉 구업.....”

이제야 온 세상의 만물들이 마음놓고  
활동을 시작한다. 조용히 불던 바람도  
이때부터 ‘쌩! 쌩!’ 소리를 내고, 행자님  
도 이제부터 바쁘게 움직인다. 저기 산  
속의 나무들도 꼭 참고 있다가 이제야 넘  
실넘실 바람에 흔들려 춤을 추기 시작하  
다. 도량석 스님도 신명나게 모든 일체  
중생들을 깨우려 도량 구석구석을 돌아  
다니고 있다.

큰방에도 불이 켜지고 바쁘게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의 불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어느덧 일체 중생들을 깨우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량석 스님이 큰방 앞을 지나고 있다.

AM 03:12

새벽종성 하는 스님의 신호로 도량석은 정리되고, 상단의 촛불과 실내 장엄등은 모두 켜졌고, 금강경과 좌복 등 예불 준비가 다 끝났다.

“부디 이 종성이 법계에 두루하여 일체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발원하면서 어떤 때는 멋도 부리고 어떤 때는 신명나게, 또 어떤 때는 구슬프게 하는 것이 종성 하는 스님과 금고가 묻고 답하는 듯하다.

“나아~ ●당! 무우~ 아미-이-타아 불 ●당!”

각 본사에서 배웠던 염불가락으로 한껏 늘여 뽑거나 꺾으면서 이어지는 새벽종성이 오늘따라 신명나게 들린다.

AM 03:24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회향계를 끝으로 종고루로 임무가 넘어간다. 이때가 가장 절정기라 할까? 그 적막함은 온데 간데 없고 온 대지가 모두 완전히 깨어나서 법당으로 모이고 있다. 종고루에서는 법고·범종·목어·운판 등이 차례로 울리며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고, 큰법당에서는 스님들이 절을 하고 있다.

법고의 마무리로 모든 스님들은 일제히 자리에 착석하여 입정에 들고, 다시 적막함 속으로 빠져든다.

靜中動 動中靜

법당 가득 시방세계 온갖 유정들이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대기하고, 법당이 부족해 바깥마당의 허공에도 저기 보이는 데까지 가득히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러 온 유정·무정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 그 한 가지의 목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 지금, 그 적막함을 깨는 소리. 쟁! 경쇠소리에 일제히 일어나 본격적인 예불이 시작된다.

‘지-이 심~’ 처음으로 나오는 이 소리는 정말 장엄하다. 천상의 그 어떤 멋진 소리보다 바꿀 수 없는 이 대중이 만들어내는 소리. 이로부터 예불은 시작되고, 시방세계 온갖 중생들은 각각의 세계에 맞게 화음을 만들면서 장엄하고 있는 듯하다.

AM 04:40

108참회를 끝으로 모든 스님들이 큰방으로 돌아와 간경 준비를 한다. 그 날 배울 과목이나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하나 쉽사리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쏟아지는 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나만 그런가 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역시 옆의 스님도 꾸벅!

AM 07:00

상강례. 강의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예를 올리는 의식. 강원 대중이 전체 참석하고 ‘열심히 배우겠노라’ 다짐도 해본다. 어찌다 강주 스님의 ‘한 말씀’이 길어지면 곤혹스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리 저림을 참고 상강례에 임한다.

‘원해여래진실의(원컨대 여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하는 구절을 끝으로 강의가 시작된다.

산통으로 그 날 발표할 스님을 뽑고, ‘앗! 내가 걸리다니.’

一念才生慧力扶  
爲報北堂休悵望  
比如死子比如無

아아~. 이 얼마나 처절한가.

“한 생각이 생기려하면 지혜의 힘으로 잡아주고, 어머님께 바치오니 슬퍼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죽은 자식이나 없던 자식으로 여겨주소서.”

더듬더듬하면서 석사를 끝내면 한숨이 나오고 한번 시켰으면 다시 시키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AM 11:10

사시 예불 후 공양시간이다.

앗! 가사를 정리하고 큰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특식으로 나온 카레 냄새가……. 소심경을 하고 행익(行益)을 다 끝내고 계송을 한다. 그런데 자꾸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건 왜일까? 도대체가 계송을 할 수 없어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면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면 앞자리의 어른 스님이 빙그레 웃고 계신다. 빨리 끝내고 먹어야지.

PM 13:00

하루 중 주어지는 자유시간이래야 12시부터 2시까지 고작 두 시간인데 오늘도 방장 스님은 울력을 시키신다.

겨우내 땀 장작도 정리하고, 해우소에 뿌릴 낙엽도 썩기 전에 거두라신다.

모두가 학인들에게 당신 나름대로의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미소 띤 얼굴로 울력을 한다.

PM 15:00

힘들게 울력 마치고 왔는데 강주 스님은 왜 간경 앓느냐고 나무라신다.

정말 너무해!

결국은 남은 한 시간 동안 목청껏 소리

높여 간경을 한다. 역시 하고 나면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을…….

PM 21:00

시간이 계속 흘러 삼경까지 왔다.

하루를 정리하며 와선 수행을 할 차례이다. 오늘은 많은 것을 배웠다. 양개 화상이 기다리는 어머니께 ‘본래 죽은 자식이나 없던 자식으로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구절에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가슴이 시원해지는 커녕 오히려 더 답답해지기만 하니

‘아아~. 나는 지금 이대로 괴롭다.’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을 피해 산 속으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물소리 바람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등으로 바깥보다 더 혼란스러우니……. 이젠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이런 망상을 하면서 또다시 제일 첫 장 첫머리의 감감·고요·적막·조용한 세계로 다시 들어간다.

z z Z Z Z.

## 신발 속 작은 세상

효산(曉山) / 치문

오늘 아침도 신발을 잘못 신었다. 우리가 흔히 '분위기'라고 부르는 일종의 예감 같은 것을 발도 느끼는 것인지, 똑같은 크기의 발인데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某스님의 통명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발을 대신 하여 씨익 웃어주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죄송함보다는 수각장의 일자형 슬리퍼에 가까운 某스님의 발 모양 때문이었는데, 아는 지 모르는 지 그 정도 모함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또 씨익 웃는다.

결제를 한 지 십 여 일이 지났을 때였다. 모든 스님들이 똑같은 모양의 털신에 각자의 표시를 한다고 이런 저런 모양을 그렸는데, 某스님의 털신 위에는 3×5cm 크기의 병원용 흰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알아보기 쉬우라고요...”

나는 박장대소하고 감탄의 말을 잇기를 “정말 대단한 생활력이시네요.”

그 이후 아무도 그 某스님의 털신을 바꿔 신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반창고가 떨어져 다시 그려진 동그라미는 오늘처럼 아침 예불 후 번번이 ‘또 바뀌었네요’ 하며 나로 하여금 신성한 생활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며칠 전 소임을 마치고 대웅보전 앞을 지나다 한 스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전 옛날부터 웃는 모습이 좋더라구요. 어릴 때 무슨 그림을 그려라 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속에 웃는 눈 두 개, 웃는 입 하나 그렇게 그렸거든요.”

얘기를 듣는 순간 난 조금 아찔한 생각도 들었다. 왜냐면 처음 자대에 배치 받았을 때, 내무실 벽에 그려진 그 끔찍한 미소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금은 낮고 씩씩한 듯한 스님의 목소리 뒤로 느껴지는 미소는 좀 과장일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모든 일들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아챈 반가사유의 미소와 좀 닮았었다고 할까? 겨우 두 세 마디가 오고 간 짤미였지만 웃는 모습이 그려진 그 스님의 신발 속..... 그 따뜻한 체온이 배어들 것만 같았다.

또 한 스님의 신발에 얽힌 사연은 전산실에서 이루어졌다.

“이거, 이거. 이런!”

마침 전산소임을 보고 있던 나는 혼잣말이려니 생각하며 애써 뒤돌아보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 책장의 페이지 숫자가 보이지 않아 온통 번호가 영켜버린 채로 양면복사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첫 장부터 페이지가 맞나 확인해드리고 어긋나기 시작한 페이지를 알려 드렸더니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는지, 오히려 뒤늦게 일어선 내 몰염치가 몹시도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그 스님과 같이 전산실을 나오면서 우연히 보게된 신발 위에는 정말 눈에 잘 띄는 봉우리 모양의 큰산을 그려놓고 있었다. 우리 강

당에서 제일 세납(世臘)이 많으신 스님 인지라 간경 때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천천히 경을 읽어 가시는 모습을 보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 답답함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또 매우 드물게 느끼는 일이지만 아침마다 금강경 독송을 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환희심을 느끼는 때가 있다. 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부처님 말씀'에 맞추어 일자목탁의 신호에 의해 동시에 읽혀진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뿌듯했고, 그 웅장한 목소리로 인해 마음 밑에서부터 어떤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었다.

신발도 마찬가지로. 고무신이든 털신이든 예불을 시작하기 직전, 땀들 위에 가지런히 부처님을 향하여 신발 코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도반 또는 선배스님들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장소로 금강경을 독송하며 걸어가는 신성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예불이 끝난 후도 마찬가지이다. 신성한 부처님의 적멸궁에서 나와 다시 제각각의 신발을 신고 돌아오면, 스님마다 지닌 습(習)이나 또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탐욕을 신발들은 그대로 그려놓는다.

지나간 하안거, 치문반 지대방 앞의 땀들 위에는 이리저리 제 가고 싶은 대로 놓여진 신발들이 많았다. 물론 지대방 안에는 맞나는 차담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는 폭신한 베개가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동안거가 절반에 가깝게 지나간 요즘이야 지대방 앞에도 가지런히 서로를 넘나들지 않으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 하안거 때 신발을 가지고 몇 번이나 편잔을 주었던 윗반 스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조그만 이해의 부분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화합'이라는 말에 가까울 것이다. 큰 두 눈에 사팔뜨기의 이상스런 눈동자를 그려놓은 한 스님을 난 장난스럽게만 생각했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지금 (엄청난 사투리에 엄청 큰 목소리로 '호호호' 웃는) 그 이상스러움이 오히려 더욱 우리를 빨리 가깝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나, 지저분하고 번잡스레 보일까봐 신발 맨 뒤에 테잎으로 표시를 한 치문반 노장스님의 일상 중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와 포행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나.....

신발 위의 사소한 표시 하나 하나를 기억하듯 이젠 각각 스님들의 성격이나 습관을 알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가지런히 줄이 맞춰진 대응전 땀들 위, '화합'의 신발 코를 떠올려본다.

오늘도 유난히 발에 땀이 많은 스님의 발에서는 해석하기 애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해석하기 어려움이란, 여러 스님들마다 그 견해가 틀리기 때문이다. 한 스님은 "어휴 냄새야!"하며 지대방을 빠져나가기 바쁜 분이 있는가 하면, "뭘! 자연의 냄새 구마"하며 옛날 농사지을 적 두엄 얘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신발 속 가득 찬 향기를 맡고 어떤 스님은 지옥 보듯 도망을 치고, 어떤 스님은 호호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마음 속에 있는 '신발 속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찌 탓할 수 있으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발 속, 작은 세상'에 마음껏 제 코를 들이 댈 수 없는 것처럼, 애써 그 구린 냄새를 들추어내는 것보다는, 서로의 못난 부분을 제 허물 받아들이듯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 바느질을 하며

각산(覺山) / 치문

오늘은 자율간경을 한다기에 모처럼 밀쳐놓았던 구멍나고 해진 양말을 기웠다. 짬이 날 때 꿰매면 될 것을 바느질하기 싫어 구멍난 쪽을 발등으로 오게 돌려 신다가 버리기도 아까워 따로 모아둔 것이 벌써 몇 켤레나 되었다. 참선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한코 한코 깎는다. 출가 이후 몇 번 바느질하다보니 이제는 마술사처럼 멋지게 요리조리 잘 꿰맨다.

항상 바느질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입산 첫날 받은 구멍난 양말과 뒤축이 찢어진 검정 고무신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얼굴이다.

출가 전 세속에 있을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바느질은 고사하고 조금만 입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새것으로 바꿔 입고 팽개친 것이 한두 가지였던가. 그러나 출가 대장부가 될 것이라고 입산한 첫 날 새로 받은 옷들은 낡아 해진 내의와 뒤꿈치에 구멍이 뿜 나있는 양말이었다. 그 양말을 뒤코가 찢어진 검정고무신에 9일간이나 냄새를 짹짹 풍기고 신다가 입방(入房)이 허락된 후 삭발하고 처음으로 발을 씻으면서 양말을 빨아 새로 꿰매 신을 때, 그때 그 기분과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경험으로 시주

물을 아낄 줄 아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청빈한 무소유 수행자의 삶을 살리라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살다보면 짐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과감하게 줄이려고 한다.

두 번째는 언제나 아련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이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떠보면 바느질하고 계신 어머니가 보였다. 그러면 난 잠결에 기어서 당신 곁으로 가 무릎을 베고 다시 잠들 때 그 포근하고 폭신한 꿀맛 같은 추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당신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 모두 놓아버리고 훌쩍 출가하여 스님의 길을 갈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가슴 메어질 땐 동산 양개 화상의 사친서를 생각하며 구도에 대한 마음 다잡고, 또 '일족 중에 한 사람의 출가공덕은 구족이 천상의 복을 받는다' 라는 「불설출가공덕경」의 부처님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며 처음의 마음을 놓치지 말자고 다짐한다. 그러면서도 지대방에서는 치문반 아니랄까봐 웃고 떠들지만…….

오늘도 어느 도반이 나를 꼬집는다. 내가 바느질하는 것을 보고 늦깎이 출가라 칭송맞아 보였나보다.

“양말 없습니까? 하나 드려유~?”

아! 수행자란 무엇을 하던 향기가 남아 있다는데 난 뭐야? 이거……

## 아, 송광사 강원

홍전(弘田) / 사미울의

정확히 3분 10초 전에 이 백일장 용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은 막막하다. 왜? 도대체 무얼 써야 할지……. 부담없이 아무거나 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는 더 부담인 것 같다.

이 흰 종이는 망망대해요, 써나가는 글씨는 작은 조각배 같다. 그러다 틀리면 큰 파도가 지나가듯 커다란 지우개가 쓰윽 지나가면 이 작은 글씨들은 다시 종이 속으로 가라앉으니……. 그래도 어찌 하겠는가? 써야지.

강원? 출가하기 1년 전쯤 들어본 말이다. 절에 잠깐 기거하고 있을 때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끔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강원'이었다.

'강원생활이 이러쿵저러쿵, 이 강원은 이렇고 저 강원은 저렇고 그 강원은 그렇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출가하여 그때의 '강원'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추가하여 들린 얘기로는

'강원 졸업하기가 盲龜遇木이더라'

'강원 졸업하면 초지보살은 된다'

'강원 졸업하려면 삼국지 열 번은 읽어라' 등.

이제 겨우 한달 지난 강원생활. 그것도 사미반의 강원생활은 앞에 쓰인 말들을 가늠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처음엔 이곳 송광사 강원엔 오게 되리라는 생각도, 그것도 사미반부터 시작하리라는 생각도 없었다. 송광사 강원은 공부할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나의 근기(根機)로는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가고 싶었던 강원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아직도 이곳 강원 생활을 뭐라고 말하긴 힘들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아 횡설수설하는 느낌이다.

우선 지대방 이야기부터 써 봐야겠다.

사미반 지대방은 일명 '아방궁'이다. 도반(이렇게 부르면 '반장이야!' 라고 우기는) 해안스님과 단 둘이 쓰고 있으니 윗반 스님들은 상당히 부러워하겠지. 우선 동안거까지만이라도……. 관물대도 많고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별

로 걸릴 것이 없으니, 둘이 쓰기엔 넓어서 좋다.

나를 부를 때 항상 '말번(末番)!' 하고 부르는 해안스님은 영국에서 왔다. 그래서 가끔 대화하다 보면 한국말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몰라도,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할 때가 가끔 있다. 그래도 행자교육원에서 안면이 있어서인지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무척 반가웠다. 대교반까지 같이 졸업했음 좋겠다.

또 윗반 스님들께서 부러워할 것(?) 중 하나가 강주 스님과의 강의시간이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힘들다. 강의 시간에 한눈도 팔지 못하고, 졸지도 못하는 데다가 수없이 질문을 요구하는 강주 스님의 강의 스타일에 마치 탄창에 총알 떨어지듯 나중엔 그 탄창이라도 던져야 할 만큼 긴박한 때도 많다. 하지만 지금 이려고 나면 다음 치문반에서 어렵지 않을거라는 말씀에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며 전의를 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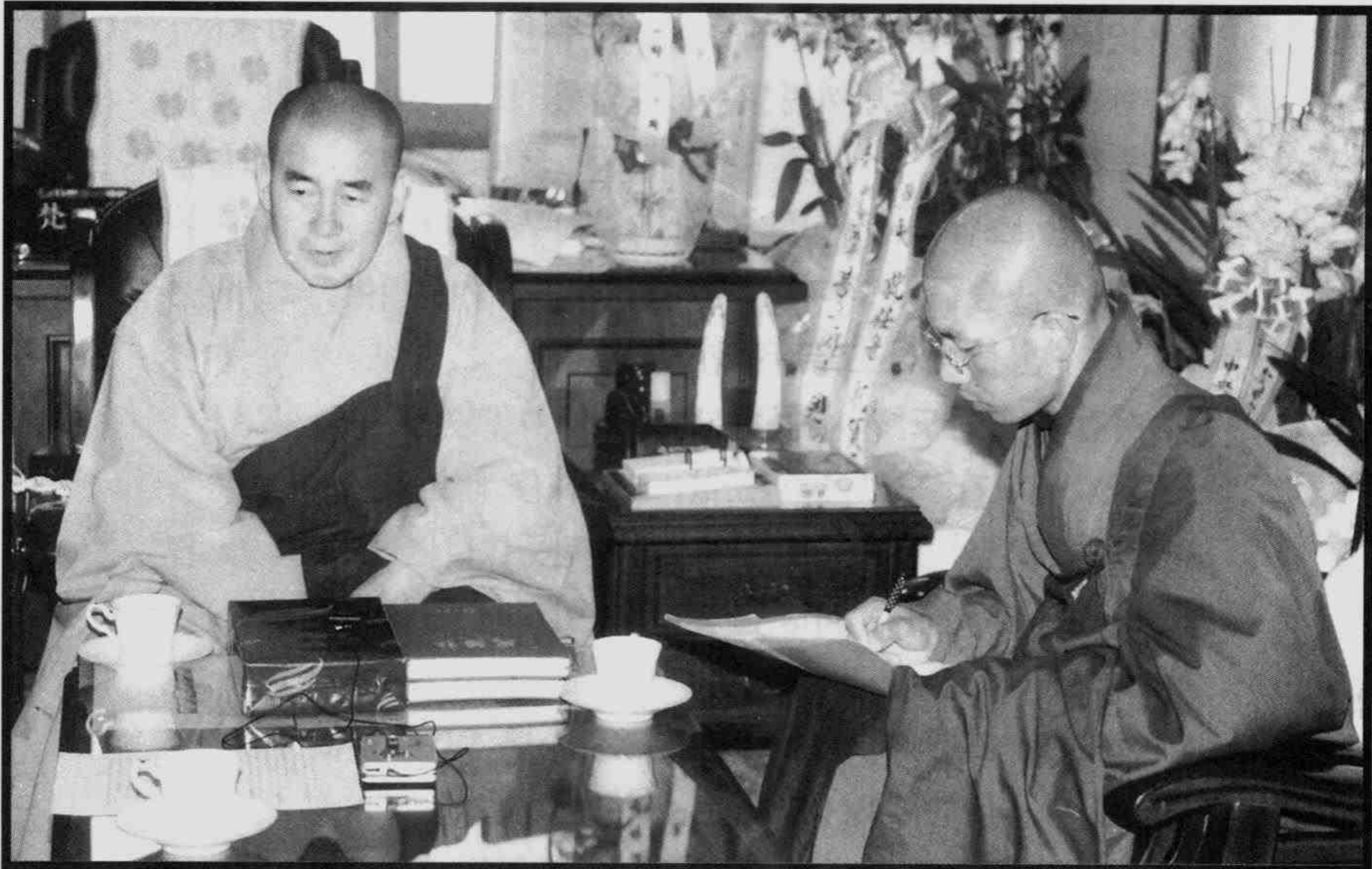
그리고 대중생활. 몸에 익숙해지지 않아서인지 처음 며칠은 힘들었다.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져 이래저래 헤매기도 했지만 대중 스님들의 관심어린 지적과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 지금은 서툴러도 많이 봐주지만 내년에 치문반이 시작되면 무척 힘들거라는 생각도 든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지적과 도움이 앞으로의 강원생활에 커다란 밑바탕이 되리라 생

각한다.

여기까지 써 봤지만 정혜사에 실리지 않았으면 한다. 어제 밤까지는 분명 결작이었는데 아침에 읽으면 졸작이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정혜탐방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편집부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취임하시고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총장 임명을 받고 업무를 파악한다고 좀 바빠진 게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둘째는 취임식을 앞두고 '혹시 다녀가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까' 이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총장을 하기 전에는 '교육의 방향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의 방법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의 이상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이 그동안 승가대에 몸담고 있었던 과거라면, 총장 업무는 단순히 교육의 이념이나 내용을 연구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라 교육현실을 직접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는 직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이상을 총장이라고 하는 직무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과 승가대는 어떻게 다른지, 강원과 승가대가 상호 보완할 점이나 공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 자신이 70년대에 강당에서 학인들과 함께 몇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승가대에서 지냈는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강원의 교과과정이나 졸업년한이나 일상 생활을 보면 전통적인 경론·불전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또 논강·문강 등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찰 수행으로서 조석예불이라든지 대중공양이라든지 대중올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통수행의 바탕을 두고 강원생활을 착실히 경험했었죠.

그런데 승가대학은 설립이념이 있어요. 79년 3월에 승가대학이 발족하면서 강원에서 공부하는 경전이나 논전·율전·선전 이런 종합적인 불전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중생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선지식을 양성하는 데 승가대의 설립 목적을 둔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6대 실천강령을 통해서 불교를 자기화하고 불교를 민족화하고 불교를 사회화하고 불교를 인류화하는 강령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가대학은 순전히 학문만 하는 곳도 아니고, 강원처럼 전통적인 학습이나 불전 교육에 역점을 두고 수행생활에 모든 과정을 맞춘 그런 것하고도 좀 다르죠.

그래서 전통 불전과 수행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와 중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과 덕성과 재능을 갖추도록 한다'라는 교육목표 아래 공부하고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교과과정도 개설서라든지 불교사·한국불교사·조계종사·선전·논전·율전·경전 이런 제반 불전들을 배우고, 학과도 기본적인 불교교육을 위한 불교학과, 또 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사회복지학과, 경전을 한글화하고 현재의 대중언어화하자는 의도에서 역경학과, 이러한 내용을 중생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교사회학과 등 이런 학과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원과 승가대학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경영하는 방법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통도사 강주로 계시다가 중앙승가대로 옮기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통도사에 있다가 서울에 출장을 했었어요. 또 80년대부터 중앙포교원에 8년 정도 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일이 많아지고 승가대에 출강도 해야 되고 포교원에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통도사에서 자연히 서울로 옮기게 되었

습니다. 처음에는 출강만 하다가 85년도 3월부터는 소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더 많이 봐야 되고, 이력저력 하다보니까 70년대가 가고 89년부터는 승가대가 학교 법인으로 인가가 되고, 90년대부터는 학교에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된 것이지,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傳講 해 주신 홍법 스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님께서는 법호가 운조당(雲照堂) 홍법스님이신데, 78년 음력 유월 스무 이렛날 열반하셨어요.

60년대 교무를 오래하셨어요. 당시에는 교무·재무·총무 3직 밖에 없을 때거든요. 본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는 게 총무, 즉 도감이죠. 재무는 살림살이를 하고, 교무는 일용의식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불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은 전부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무소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그러면서 계속 경 보시고, 중장으로 오랫동안 사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또 그 다음에는 교무는 그만 두시고, 오랫동안 강주로 계시다가 주지를 맡게 되시면서, 71년 3월에 주지 취임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강주에서 퇴임을 하시고 저한테 전장을 해 주시고, 주지로 봉직을 하시게 됐죠.

이것이 운조 스님에 대한 대강의 행적이고,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신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아주 겸손하세요. 그렇게 겸손한 분은 제가 일찍이 못 봤어요. 어떤 학인에게도 다 말씀을 높이세요. 또 어디 출타를 할 경우에 오늘 돌아오실 지 내일 돌아오실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면 안 돌아와도 화목 담당하시는 분이 아궁이에 불을 땀다구요. 그래서 이 분은 꼭 어디 갔다 못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꼭 아궁이에 써놓고 가세요. ‘오늘 불 때지 마세요’ 모래 오시면 ‘내일까지 불 때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고 가시고, 또 불을 조금만 때라고 해서 항상 방이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추워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여쭙면, 추우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나 유럽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추우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되지, 나무를 많이 때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리고 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항상 울력을 같이 나오세요. 그 당시에는 가을걷이도 하고, 모도 심고, 도량청소도 하고, 화단정리도 하고, 당시에는 사원 재정도 넉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으레 사찰에 관련된 일들은 대충이 나서서 했거든요. 그게 가풍이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모시는 데도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모셨어요.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회의 들어가기 전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늘 이런 안건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셔서 아주 큰 감명을 많이 주신 그런 분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수행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소임을 기피하는데, 스님께서는 많은 소임들을 두루 경험하셨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큰절에 있을 때에는 강사를 오래 했고, 상임법사 이런 것들은 소임이라고 할 수 없고, 교무를 10개월 했는데, 교무 10개월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책만 보고 할 때는 심지어는 영수증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교무를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공금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인계인수를 하면서 내가 무슨 공무를 처리하면 그것이 뒤로 전해진다는 것, 사무(事務)나 사판(事判)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로구나, 이것을 교무 몇 달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와 가지고 포교사실에 있을 때는 포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에 참가해서 강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사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요. 승가대학에 와 가지고는 초창기에 아주 예산규모가 얼마 안됐을 때 그 때 학교 살림을 1년 동안 살았고, 그러곤 쪽 도서관장을 했습니다. 도서관장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보직이라면 보직이고 공직이라면 공직이라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총장은 차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맡을 수밖에 없었나,

처음에는 맡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총장님을 새로 모시는 과정에서 새로 총장님을 모실 때에는 내부의 교수들이 잘 뜻을 모아서 여법하게 모시자, 그러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총장 추대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을 하고, 총장추천위원도 학교 자체에서 뽑기 때문에, 제가 교수회를 대표해서 총장추천위원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장이신 총무원장님을 가서 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요번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귀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교수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사장님께서 교수님들 중에서 총장을 임명한다고 하시니 우리 교수님들 중 누군가는 총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누가 총장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끼리 먼저 내정을 해 보자, 그러다가 총장 후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교수스님들 중에 80년대부터 출강을 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승가대 총장의 계승이든지 이·취임의 본보기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먼저 왔으니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정으로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출가하신 40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가장 신심 났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6·70년대가 항상 그리워요. 60년대는 우리 한국 불교사에서 정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62년 초에 정화가 거의 마무리되고, 화동종단이 생겨 가지고 비구·대처가 화동해서 62년 3월 25일 날 화동종단 종헌 종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화동종단이 생겼던 그러던 때인데도 산 속의 암자같은 곳에는 정화가 안된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우연히 어린 나이로 정화하는 데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법당에서 예불하는 모습하고, 사찰에서 밀고 밀리는 모습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정화하는 데는 가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점은 있었어도 그 외에는…….

60년대는 절들이 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행자님들이나 학인들이 매일 나물 뜯

고, 저녁에도 시래기 넣어서 죽 먹고, 일도 많이 했죠. 오늘날같이 외국여행을 간다든지, 뭐 컴퓨터를 기자재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꿈에서도 듣지 못한 얘기였어요. 그저 오로지 근면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항상 일하고, 선방 같은 데 60년대는 저녁에 ‘약석’이라 해 가지고 죽으로 공양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근면 검소한 생활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죽 먹고 같이 빨래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고, 그렇게 신심이 나고 또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줄 모르는 게, 주지스님이나 조실 스님이나 선배스님들이 전부 함께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철학이 인간은 어렵다고 불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도 모두가 함께 하면 즐겁다. 이것을 60년대 대중생활을 통해서 느낀 점이에요.

그리고 70년대에는 가는 데마다 낡은 법당이나 요사채를 불사한다고 무차별하게 절 입구에 관광지가 들어서고, 사찰마다 절 짓고 환경미화한다고 굉장히 바쁜 때였어요. 80년대부터는 학생들이 분신을 한다든지 해서 연일 시위였고, 90년대부터는 목표, 이념 등이 명확하지 않고 세파의 물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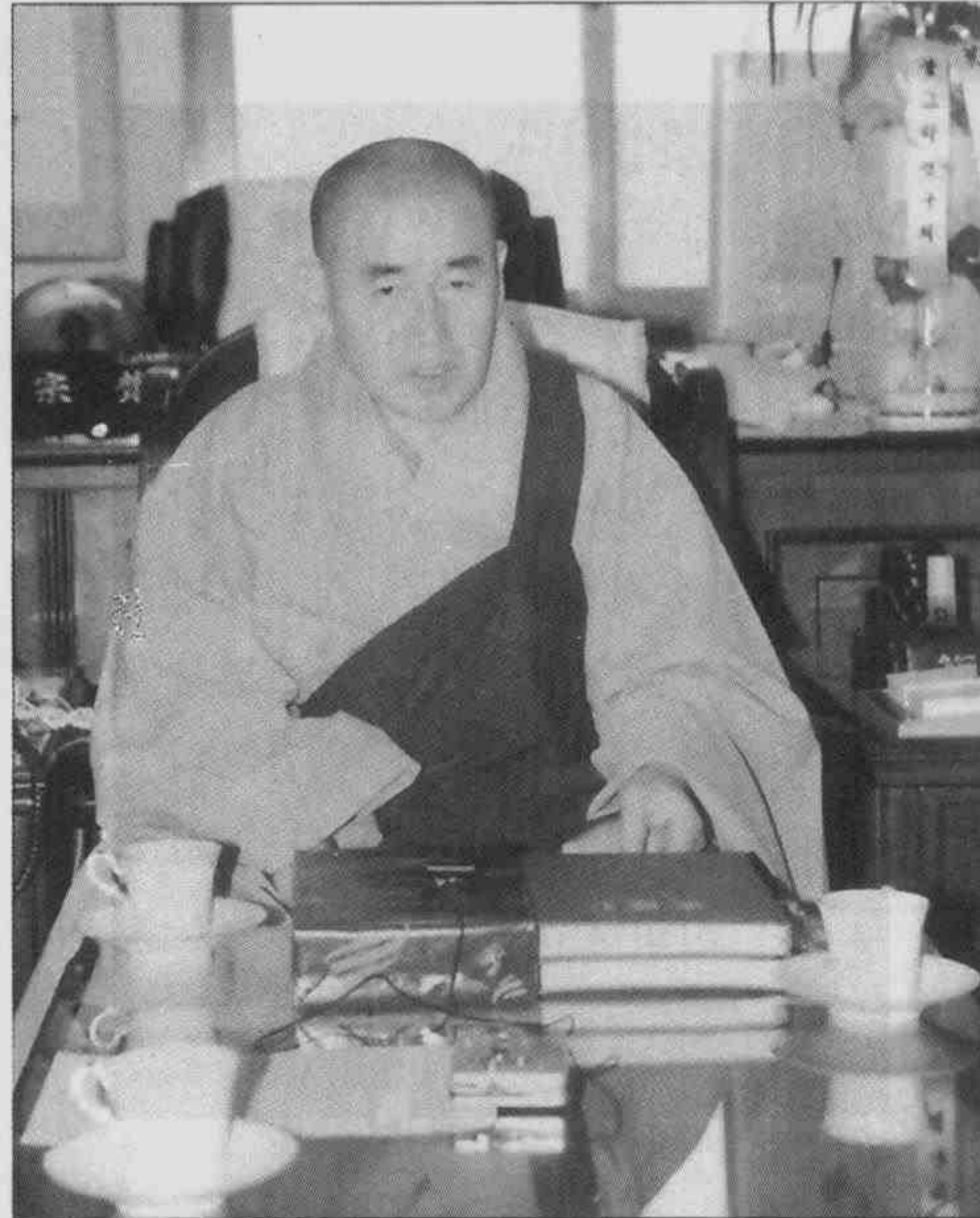
너무 많이 출렁이는 것 같았어요.

농업은 침체되고, 공장에서서도 근로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반면에 여행이나 유흥업소나, 음식점, 주점 등이 거리거리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너무 이거 급속도로 3차 산업이 발달하는 게 아닌가, 서비스산업이 너무 팽창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중복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물질을 정신이 주도를 해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이게 물질계통에 정신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고한다면 60년대 70년대가 제일 기억에 남고, 90년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시다.

한국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게 된 사연과 승려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때는?

부루나 존자라는 얘기는 84년 봄, <불교를 알기 쉽게>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설법집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스님이 테이프를 하나 만들자고 제의해서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끝내고 채록을 하며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카세트테이프 12개와 책이 같이 나오게됐



어요. 그런데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책표지의 날개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출판사에서 '한국의 부루나 존자' 라고 쓴 거예요. 그게 '한국의 부루나'가 된 거예요. 날개말에 '부루나'라고 부르니까, 여기 저기서 '부루나'라고 부르더라구요.

승려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자기 인생이 뭐냐', '자기 마음이 뭐냐', '자기 존재가 어떤 거냐' 회고를 할 수 있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에 깊이 침잠해서 세상 것에서 자유로운 여유가 생길 때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을 쉰다고 하거든요. 마음이란 그냥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교정신을 통하여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자기 자신에 만족한 그러한 정신세계가 느껴질 때 그 때가 가장 보람 있을 때죠.

요즘 들어 교육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이 있다면?

종단에서 왜 막대한 자금을 출자하여 굳이 대학을 운영하겠는가? 그것은 종단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단에서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승가대의 설립이념에 보면 불교정신에 의해서 사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선지식을 양성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선지식은 어떠한 면을 구비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불교정신에 의해서 선지식의 품격이 갖춰지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불교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불성, 인간의 생명, 진여본성을 믿고 불법승 삼보를 믿는 신심으로 부처님께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심으로 삼보에 공경할 수 있고 삼보를 참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반인 같으면 누가 먼저 챙취하느냐라는 세속법의 기준에 맞추면 끝나는데, 신앙하는 사람은 세속법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인과법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학에



대해 이해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는 교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실천 수행 생활로 옮길 수 있는 수행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는 이런 것을 어떻게 사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교화라 합니다. 승려는 불교 신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보로서 자연스럽게 교단을 대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식이 되려면 신앙인 교학인 교학인으로서 품격이 갖춰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강원은 수행인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열심이나 교학인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 같은데, 교학인으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화라는 것은 필히 방편이 따르거든요. 방편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접근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을 때, 수행자로서는 모른다고 하고 안에 들어가서 좌선해도 되지만 교학자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화는 방편인데, 방편이라는 것은 쉽게 접근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 길 모르고 아쉬운 게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길을 인도한다는 것이 교학자의 자세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찰에 와서 실수를 했다 할 때, 위의에 어긋난 언사를 썼다면, 수행자 입장에서만 보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충돌을 하게 되면 교학자로서는 실격이거든요.

교학자 입장에서 적절한 것이냐, 수행자 입장에 적절한 거냐, 교학자 입장에서 적절하냐, 신앙자 입장에서 적절하냐? 즉 교학자 수행자 교학자 신앙자 입장에서 덕성을 갖출 때 오늘날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인들 중에도 졸업 후 포교의 원을 세운 스님도 있는 데, 미리 준비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3가지인데요.

첫째 자기 신심이 확실히 무장이 되어야 해요. 신심이 무장이 잘 안된 상태로 포교에 참여했다가 자신이 속화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중 수행보다 몇 배나 어려운 것이예요. 속화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둘째는 교학이 간명하고 해박해야 됩니다.

셋째는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아량과 배려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내 멋대로 끌고 가려 하면 절대 포교가 안 됩니다. 중생을 배려하는 아량 그게 일어나야 해요. 가끔 포교한다고 하는 사람 보면 사회 실정과 중생의 고뇌는 생각 않고 자기 식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못하고 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만 갖춰져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수지 독송하는 경전과 계송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고, 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고요.

독송이 제일이더라고요. 그전에 금강경을 읽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경도 많이 못 읽어요. 독송을 자꾸 하는 게 좋고, 계송은 다 좋아요.

계송은 다른 것 멀리 찾지 말고 시식문 장엄염불 있잖아요. 시식만 자꾸 해도 복도 많이 짓고 업장도 소멸되고 수행도 됩니다. 장엄 염불 계송도 좋아요

끝으로 후배 학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근간에 자주 들었던 얘인데, 송광사 강원은 강주 스님이 원력을 가지시고 학인들과 함께 정진을 하시고, 학인들이 열심히 하셔서 모범적인 강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수행과 일반 사업이 어떻게 다르냐? 사업은 요령이 필요하지만 수행은 요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일수록 쉽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근면하게 움직여서 정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또 다른 승무

진관(眞觀) / 사교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 말라.(不歌舞倡伎不往觀聽)

절에 들어 와서 맨 처음 배운 계율에 나오는 글이다. 스님네들이 세상인들과 어울려 유희를 하거나 수행자의 본분을 잃고 즐거움을 탐착하는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 설한 것이다. 그런데 학인 신분엔 두 번이나 춤을 추게 된 이야기를 해야 되니 조금은 조심스럽다.

흔히들 절에서 춤하면 조지훈 옹의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승무>에서의 맑은 이미지와 대안스님과 원효스님의 파격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有時醉酒罵人하고 忽爾燒香作禮이라  
때로는 술에 취하여 사람에게 욕을 먹다가

홀연히 향을 사르고 예를 드린다

-금강경 오가해 中.

진실한 본성자리에서 항상 부처님을 향한 신심으로 충만하다가도 대중을 위한 방편에는 지옥불도 마다하지 않는 보살의 모습이 춤에도 스며들어 있는 듯하다.

방학 때가 되면 가끔 대학로에 간다. 근처에 친한 도반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산에 사는 인간임을 더욱 느낄 수 있어 마냥 거닐기도 한다. 변화하는 느낌에 취하기도 하고, 거리의 악사가 부르는 노래를 멀리서 들어보는 재미도 있다. 그 중 가장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춤추는 곳이다. 처음에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벌써...' 하는 생각과 그들의 춤추는 장소가 좀더 양명(陽明)하기를 바라면서 보곤 했는데, 어느새 현란한 춤 솜씨에 빠져 나도 다음 생엔 긴 장발머리에 녹음기를 들고 힙합 춤을 추는 자유로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왜 일까? 일상적인 반복된 삶을 계속하며 규칙 속에 살아온 탓에 마음 속에 또 다른 내가 반항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잠시 가려 있던 업식이 동하는 것일까?

출가해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엄한 조실 스님 시봉과 고리타분한 송광사 강원에서만 살아온 내가 두 번씩이나 승무 아닌 승무를 추게 된 일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대학로의 망상이 발현하였나 보다.

첫 번째로 춤을 추게 된 것은 매년 겨울이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6대종교 (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의 젊은 성직자들의 모임에서였다. 젊은 성직자들이 가슴을 열고 종교간의 대화와 화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간 수련을 하는데 불교계의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버스 안에서 간단한 상견례를 하고 도착한 '바람과 물 연구소'에서의 분위기는 연극과 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하는 박상영 간사님의 부지런한 손짓과 기타 소리에도 쉽게 하나되지 못했다. 각자가 다른 종교관에서 살아온 탓도 있겠지만 다들 자기종교를 대표

한다는 의식에서 서로가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나는 쉽게 드러나는 복장과 머리모양을 한 지라 흔히 듣는 인사말 정도만 오갈 뿐 서로가 가벼이 다가서질 못했다.

그러는 중 넓은 홀로 참가자 모두가 모여 음악에 맞추어 춤도 추고 시도 읊으며 몸짓 언어로써 마음의 긴장을 푸는 명상춤 시간이 되었다. 박 간사님의 지도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음악이 시작되는데, 미칠 일이다. 솔직히 춤추지 말라는 계율은 생각도 나지 않고 '내가 스님인데' 라는 생각만 가득하였다. 모두들 진지하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나만 허수아비 춤도 되지 않았다. 한 두발 억지로 움직여 보다가 멈추고 또 한발 두발. 그들은 나를 보지도 않는 데 스스로 '난 스님인데, 저들은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인데...'. 그렇게 1시간이 흘러가고 온몸으로 서로를 껴안고 침묵의 하나되는 순간까지 나는 조계종의 착한 율사로 남아 있었다. 지금도 그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하지만 왠지 첫 만남을 이야기 할 때면 스스로 그때가 생각나서 웃곤 한다.

두 번째 춤은 스님들과 대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추었다. 사집반 하안거 때 청소년수련회 지도법사를 하게 되었다. 그저 아이들이 불러주는 '곰돌이 푸우 스님' 하는 소리가 좋아서였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수련회 전부터 회의며, 각자 프로그램 연구, 자료집 만드는 것 그리고 편지발송과 접수까지 뻑뻑한 강원 일정 속에서 수련회와 강의는 두 마리 토끼가 되어버렸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전국에서 온 120여명의 아이들과 신나는 3박 4일이 시작되었다. 온통 맑은 햇살이었다. 귀여운 아이들과 같이 절하며 발우공양·참회·사경·강강술래 등. 청진기를 나무에 대고 살아 흐르는 소리를 듣고는 신기해하면서 미리 안 것처럼 뻑뻑하게 설명도 하고, 치문반 시절 그렇게 지키기 힘들었던 큰방에서 묵언을 이젠 아이들에게 시키며 기합도 주고.....

마지막 밤은 가까운 오도암에서 캠프파이어가 있는 날이다. 아침부터 반야심경 사경과 법문이 있었

고 오후에는 강강술래와 민속놀이가 있어 아이들이 잔뜩 지쳐 있었다. 저녁공양을 하고 간 오도암은 어둠이 거의 시작되고 있었고, 조명과 폭죽과 모닥불이 준비된 상태에서 신나는 저녁 캠프를 시작하는데 장기자랑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준비한 아이들을 생각해선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8시 30분쯤 시작해야 할 폭죽과 모닥불 점화시간은 10시 이후로 미루어지니 하나씩 지켜워하는 아이들의 표정과 벌써 몇몇 아이들은 모기에 물린다며 절에 가자고 성화를 부리니 진퇴양난.

이윽고 10시10분 폭죽이 터지고 신나는 음악이 울리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다. 폭죽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겨우 5분. '부처님, 용서 하이소' 하며 불 가까이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아이들과 손잡고 기차춤에 디스코에 트위스트까지... 분명 조국의 미래는 밝다. 다시 살아가는 청소년.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춤이.....

그 후 수련회 정리를 하며 건네주는 사진 속에 분명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 있었다. 무엇인가 취한 듯한 얼굴,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입과 손, 그건 과거의 내 모습이였다. 청소년 지도법사도, 강원의 학인도 아닌 스스로의 흥에 취해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절에 오면 맨 처음 주의 받는 것이 화장실에서 떠들지 말기, 바닥에 침 뱉지 말기, 안행하기 등이다.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관조하라는 뜻이다. 한번 여기는 순간 한번 속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법회 순간 난 아이들을 핑계로 머리 짧은 속인이 되었다.

두 번의 춤을 추고 난 후에도 아무 일 없듯이 일상의 삶에 열중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순간 순간 스스로에게 느슨해지거나 걱정적인 내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었다. 나라는 이유로, 강원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왜 그리 무디어 져야 하는지, 다시 춤을 추워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아직은 초심학인의 그대로, 방편을 행하기보다는 어리숙하게 주저하는 모습으로 오래 남고 싶다.

## 진정한 고수가 되기 위하여

능원(能圓) / 사교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순수했던 꿈들이 험한 현실의 파고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엔 기억조차 하기 힘든 추억으로 남는다.

아직도 나는 어렸을 때의 일들을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때가 종종 있다.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슈퍼맨 흉내를 내다가 어깨가 부러지기도 하고, 무협지 흉내내면서 높은 담벼락을 뛰어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칼싸움이나 되지도 않는 발차기 등을 하다가 형들에게 얻어맞기도 했지만 여전히 추억이란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얼치기 행동들을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나 혼자만의 것일까?

나의 '드림'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림의 고수가 되고 싶었다. 숲 속을 날아다니며 높은 산을 평지 다니듯 돌아다니다가 사교(邪敎)의 무리들은 혼자 쳐부수는 그런

절대강자의 고독을 맛보고 싶었다. 물론 절세 미인과의 로맨스를 꿈꾸며…….

그런데 아쉽게도 나는 제대로 무술을 배워보질 못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지만 나는 왜 뜻만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의 모든 행동들이 이러한 '드림'의 바탕 위에 행해지기 때문에 나의 진면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 유치하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현실에서 벗어난 무협지 같은 상상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비록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되겠다던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홍고(弘鼓, 이것은 전문용어다. 대부분 사람들이 법고(法鼓)라고 알고 있지만 '법고를 친다'고 하지 않고 '홍고를 쏜다'는 표현이 맞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법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겠다)를 잘 다루는 사람, 고수(鼓手)가 되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푸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려한다.

나는 조그마한 암자로 출가해 그곳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그래서 해인사 강원에 가기 전엔 법고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나는 사집반 동안거까지 해인사에서 공부했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뻑뻑한 하루 일정. 그리고 익혀야 할 습의는 왜 그리도 많은지…….

그 많던 습의 중 하나인 야경(야간 경비. 해인사에서는 저녁예불부터 9시까지는 학인들이 야경을 돈다) 습의를 위해 종고루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법고소리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습의하는 스님이 옆에서

“저녁에는 법고를 내리면 동시에 종을 울리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굴뚝을 지날 때 소리를 내고, 첫 번째 기둥에서 대각선으로 전원을 울리고…….”

하지만 그때 내 머릿 속엔 법고소리만 맴돌았다. 그 뒤로 나는 화장원 옆에 있는 널판지(그때는 연습장이 따로 없고 큰 베니어판만 있었다)를 아무렇게나 치기 시작했다. 어떻게 치는 지도 모르고 그냥 마

구 두드렸더니 지나가다 소리를 듣고 올라온 스님들이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법고 연습할 때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뒷반의 쉬임없는 경책이 따르는 큰방생활. 습의·소임·울력·간경 등 모든 생활이 힘들었다. 오직 혼자 올라가서 하는 법고 연습만이 치문반 시절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자유정진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화장원으로 올라갔고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몰랐다. 마치 하늘의 북을 치듯 소리에 몰입했고, 1년도 못되어 해인사에서 제일 잘 친다는 스님의 인정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고 송광사로 옮겨와 살면서 어느덧 그때의 느낌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게 되었다. 자만이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주위의 시선에 한껏 우쭐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어느 순간 나의 법고소리는 더 이상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감정이 말라버린 것일까. 항상 하던 대로 치고 나면 허무함만 남았다.

그런 허무함이 하루 이들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안일함에 빠져 습관처럼 법고를 치곤 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법고를 치던 손가락이 심하게 문드러져 법고가 온통 피로 얼룩졌다. 그래서 도반 스님이 종고루가 아니라 혈고루라고 놀리기도 했다. 그때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아픔보다 내 마음의 공허함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법고를 치지 못하리라.

그런 생각도 잠시. 법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 무엇인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종고루에 올라갈 수 없었고, 나는 다시 연습을하기로 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자만에 빠진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다시 연습을 하자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했다.

문득 한 스님이 무심히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예전에는 법고의 박자가 3박자, 4박자, 6박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4박자만 남았다.”

다시 새로운 박자를 익숙하게 하는데는 많은 시간

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것은 한낱 기교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던 중 송광사에 ‘나왕 케축’이라는 티벳의 세계적인 명상음악가가 와서 훌륭한 연주와 함께 간단한 질의 응답을 가졌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의 한마디를 듣고 한줄기 빛을 보았다. 그동안 경전에서 수없이 나왔던, 그리고 도반 스님이 끊임없이 질책을 했었지만 자만에 빠져 듣지 못했던 말.

‘나의 소리는 가슴에서 끌어낸다.’

그의 한마디가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머리로 생각하여 지어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최고가 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생각으로 억지로 소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진정한 고수의 길을…….

## 세세상행보살도

성경(性鏡) / 사집

세세 생생토록 항상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행(行)을 닦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처음 대하는 순간,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함이 온 전신에 퍼져 한동안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마치 고아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우연한 기회에 부모를 만나게 된 것과 같은 뜨거운 감동과도 같았다고나 할까? 지금도 가끔씩 입버릇처럼 ‘세세상행~보살도’하며 되뇌는 때면 여전히 즐겁기만 하다.

실로 우리들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고 싶은 것은 인간이 지닌 선한 욕구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며, 더구나 말없이 이타(利他)의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아직 충족되지 못한 것

들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 더 많은 탓일 것이다. 이런 사사로운 욕심들이 보살행의 실천 앞에서 매순간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들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힘든 보살행을 행할 때, 과연 우리는 남들보다 나은 상황이나 능력을 소유해야만 나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일까?

남에게 도움이 되려면 먼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올바른 견해와 가치관을 지니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진정 남을 돕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격려를 주고 도움을 주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보다도 끝없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무런 사심(邪心)없이 믿고 신뢰하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의 일이다. 그 날 나는 좀더 참았어야 했다. 아마 강원에 들어온 이래 가장 심한 말다툼이었던 것 같다.

그날 나는 도반 스님과 차를 마시며 포교활동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단순한 대화의 차원을 넘어 서로 의견과 주장을 고집하는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배타적인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둘은 한동안 서로 몹시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

그날의 대화를 대강 더듬어보면, 내가 먼저 포교활동의 전제조건으로 올바른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다.

“스님! 포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수행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불교의 포교는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승가의 현실처럼 자신의 수행도 올바로 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포교에 임하는 일은 결국 자신도 미혹케 하고 남

도 미혹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우리 불법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며 남을 돕는 일도 아닙니다.”

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반 스님이 되물어 왔다.

“스님! 어떤 견해가 원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어도 현실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 말대로 수행이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이 포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 우리들 주변에 그런 역량을 지닌 스님들은 얼마나 될까요?”

“조금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는 조금 망설이듯 말했다.

“스님! 그것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포교를 담당할 스님들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스님 말대로 수행이 완성된 스님들만이 포교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주변의 어렵고 불우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올바르게 수행이 된 스님들만이 남에게 포교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말해 지금 우리들, 아직 신심과 수행력이 부족한 우리들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불법의 포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과 타협해서도 안되며 무엇보다 불법의 진리를 사회 현실에 올바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수행력 있는 스님들이 포교를 해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듣자마자 도반 스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스님은 여전히 답답하시군요. 스님의 주장은 완벽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비록 수행이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도 포교를 실천하며 동시에 수행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말과 현실이 다릅니다. 수행력이 부족한 사람이 무턱대고 소임을 보거나 포교에 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반 스님은 약간 흥분한 어조로,

“스님! 꼭 어떤 소수의 뛰어난 수행력을 지닌 사람들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을 돕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한 현실입니다.”

어느새 나와 도반 스님은 자기들도 모르게 흥분해 있었고 들뜬 목소리로 서로의 주장만이 옳다고 핏발을 세웠다. 그 날, 곁에 있던 도반 스님들의 만류가 없었다면 나와 그 스님은 말다툼으로 인해 더욱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 날 이후, 나는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무엇보다 흥분하지 말고 좀더 차분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도반 스님과 나는 서로의 대화에 있어 상대방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배격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서로 시인하고 스스로없이 사과하였다.

그리고 그 날의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세세생생토록 나와 남을 끝없이 이롭게 한다는 보살의 행과 서원은 우리들 일상의 현실에서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런 현실 속에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모진 채찍을 가한다.

원명 사생육도 범계유정

다겁생래제업장 아금참회계수혜

원죄제장실소제 세세상행보살도

## 그래, 난 중이다!

우성(愚聖) / 치문

### 인시 무렵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큰방으로 향하는 스님들의 뒷모습을 본다.

주위 사방의 산천초목도 숨소리를 죽이고,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만이 고독한 그림자를 쫓는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탓일까? 대웅전 앞마당이 퐁퐁 얼었다.

‘저벅저벅 뚜벅뚜벅’

얼어붙은 대지 위에 부딪치는 검정 털고무신 소리가 혼련소를 이제 갓 마치고 자대배치 받은 군기 바짝 든 신병의 군화소리 같다. 그런데 소리의 여운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왜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초심 때의 굳은 마음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자꾸만 예전의 습관과 본능에 젖어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까워서일까.

게으름의 고리를 끊는 서릿발같은 기백으로 자신을 채찍질한다.

상강례 시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 시작한 강주 스님의 ‘한 말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인다. 아! 어찌나.

“사중에 쌀이 떨어져서 원주스님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앵? 이게 무슨 소리. 쌀이 떨어졌다고?

120여명의 대중이 하루 먹는 데 드는 쌀은 반 가마 정도. 어찌어찌 해서 두 가마니 쌀을 화주했다는 강주스님의 설명과 함께 뒤는 얼마든지 돌보아 줄 테니 학인들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그날의 한 말씀을 마감하셨다.

어린 시절 절하면 불단에 그득하던 향, 초, 공양미가 연상되었기에 쌀이 떨어졌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럴 법도 하겠다. 안거철이라 대중들도 많고, 경제가 어려워 절을 찾는 신도들이 많이 줄었으니... 그러나 그보다 승려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나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수행자의 의식주를 표현한 말이 있다.

세상사람들이 쓰다 버린 누더기만 입고 산다는 의미에서 분소의(糞掃衣), 빌어먹는다는 결식(乞食), 나무나 토굴에서 거처한다는 뜻으로 수하주(樹下住). 부처님 재세시(在世時) 대부분의 출가 수행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삶의 영위수단인 의식주를 그렇게 해결했다. 매일 같이 음식을 빌러 마을에 내려와 세상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같이 아파하는 속에서 기필코 성불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비원력을 키웠다.

불법(佛法)이 후대로 내려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기후와 풍토 생활 습관이 다른 동북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승가공동체를 이루었다. 초창기에는 깊은 산중에 은거하면서 경작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자급자족하였으나,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 승가도 변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을 단월들의 시주금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공양물의 인연을 밝힌 오관계를 읊으면서도 의미를 되짚어 보기보다는 습관화되어 버린 것 같다.

모든 것이 풍족해져 버린 오늘과는 달리 우리 노스님 때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송광사에는 목우가풍을 전해 주는 전설같은 얘기들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효봉스님이 산중의 최고 어른으로 계실 때 그분의 인품이 얼마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지, 하루는 냇가에서 콩을 씻던 행자가 물살에 휩쓸려간 콩 각지 하나를 줍기 위해 한참을 뛰어 내려 왔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고, 구산 스님께서는 후원에 나오셨다가 하수구에 빠진 밥풀 하나를 보시고선 조용히 바지춤에서 바늘을 꺼내 태연하게 밥풀을 집어 입안에 털어 넣으셨단다.

그 때의 어르신들은 쌀 한 톨에 실린 단월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의미를 목숨과도 같이 여겼는데……. 매일 하는 공양을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니 쌀이 떨어졌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신이 부끄럽다.

一米七斤!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이라는 데…….

저녁공사시간.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내일이 오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강원생활은 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다.

반장 스님이 한 말씀한다.

“요즈음 스님들이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으면서 조심하며 삼시다.”

오늘 아침 지대방에서 있었던 나와 일조스님의 일에 대한 소임자 스님의 경책이다. 오직 구도의 열정으로 멀리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와 수행하고 있는 일조스님에게 아직 우리 말도 서툰데 아무 일도 아닌 일 가지고 자존심 세운다고 일방적으로 복받친

감정을 쏟아 부었으니……. 그깟 자존심이나 세우자고 자식된 도리마저 버리고 출가한 건 아닌데…….

마음공부 한다는 사람의 그릇이 이것 밖에 안되는가 싶은 자괴감에 온 몸의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든다.

서로 힘이 되어 밀어주고 끌어주며 나아가도 신통치 않을 불법공부인데 마음에 상처나 주고 있으니…….

“일조스님 정말 미안해. 그래도 러시아 가면 먹여주고 재워 줄 거지?”

삼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한겨울의 북풍한설에 실려 긴 휘파람소리처럼 도량에 울린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옛 스님들처럼 손을 가만히 머리에 얹어 쓰다듬어 보며 중얼거린다.

‘그래, 난 중이다!’

## 어머님 보세요

현정(玄丁) / 치문

오늘은 우화각 개울에도 얼음이 제법 얼었네요.

남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어머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저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입산해 머리를 깎은 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80 고개를 훨씬 넘기신 부모님을 남겨놓고 입산의 결심까지는 나름대로의 고뇌를 거듭해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슬하의 9남매 중 어머니와 저는 남달리 정이 깊었죠.

객지생활 중에도 생일 한번 잊은 적 없이 저를 찾아주신 어머니.

어려서부터 잦은 병치레로 부모님을 안타깝게 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셨지요.

“널 난지 3일만에 젖이 말라서 밥물 받아 미음 끓이고 그걸로 겨우 목숨 부지했는데, 이렇게 자란 것이 너무도 대견스러워. 내가 그때는 우유가 있는지도 몰랐고, 오로지 정화수 떠놓고 칠성님께 빌었지. 너는 칠성님 덕분에 세상 빛을 본 줄 알어.”

그런 막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걱정이 크셨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다가 작은 어머니 꿈에 스님이 돼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안심을 했다던 어머니.

어찌 제가 머리를 깎았다 해서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마음 편히 살지도 못하고 지금도 오매불망 저를 생각하고 계실 어머니.

뼈와 살 모두 나누어주시고 지금은 허리는 땅에 닿고 바람불면 날아갈 것 같이 거죽만 남으신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불보살의 행이었던 것을 하나하나 다시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시집오셔서 없는 살림 이루시느라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래도

저희 형제 굶기지 않고 땅 사고 재산 일으켜 세우시고, 작은 아버지 두 분까지 키우다시피 해서 시집·장가보내 살림 내 주시고, 더구나 불같은 성품의 아버지 수발하시며 글로 아무리 표현하려 해도 표현 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을 행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어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1·2학년 봄철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거지와 문둥이가 무지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라서 많이 동냥하러 오고 그러면 어머니는 꼭 상 차려서 밥을 대접하셨지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투정 부렸던 일 기억나세요? 아마 어머니는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투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밥그릇과 숟가락으로 눈썹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문둥이에게 상을 차려준다고 더러워서 밥 안 먹는다고 울고불고 했었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화난 모습을 보게 되었고 회초리의 아픔도 처음 알게 되었지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머니가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서른 중반을 넘어선 지금에도 회초리의 기억은 새롭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불법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기억이 새로워짐은 어머니 행동 하나 하나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보살도를 실천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저에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분별하지 마라. 거지나 문둥이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우리 어머니는 보살이셔’ 라는 말을 자주 했었지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 지금 제가 스님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는 어머니의 덕행을 잊지 않고 한 발 한 발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인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지금까지 사중의 아주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위해 지장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가을 산철 방학 때 어머니께서 불경테이프가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귀를 의심했었어요. 어머니는 그때까지 무종교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빌어먹는 처지지만 너무 기뻐서 바로 카세트와 테이프를 사드렸지요. 잘 듣고 계시는지…….

다시금 부처님과 보살님의 무량한 공덕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어머니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생각하여 지장전에서 참회와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에 다녀와서’

중현(中玄) / 사집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정확히 말하자면 펜싱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정말이지 가끔씩 있는 즐거운 외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서울시내로 들어서자, 우리들은 이번 외출이 으레 있는 외출, 고상하게 말하면 ‘성지 순례’, 솔직히 말하면 ‘소풍’이라 하여 하루거리로 갔다올 수 있는 한적한 시골의 사찰 몇 군데 돌면서 틈만 나면 걸신들린 사람들처럼 먹어대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약간의 긴장, 미지(未知)의 그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가볍고 즐겁던 분위기는 일순간 정지되면서 어색한 침묵이 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스님이 외쳤습니다.

“앗! 횡단보도다.”

여기 저기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는 사람, 과자 먹는 사람 이름 적어서 성경 스님 갖다 줘.”

등의 우스개 소리도 웃음소리 속에 섞여 나왔습니다. 전날 공사시간에

“이번에는 버스가 시내를 지나가는 만큼 차안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을 때 잔다든지, 뭘 먹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스님으로서 위의(威儀)에 어긋나는 행동은 삼가길 바랍니다.”

하던 성경 스님의 엄숙할 정도로 진지한 당부들 모두들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버스가 행사장이 있는 올림픽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들, 바쁘게 움직이는 안내 요원들, 주차장에 모인 엄청나게 많은 관광 버스들, 그리고 여기 저기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며 아마 모두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소풍 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엄청 대단한 걸 하긴 하는 모양이야.’

펜싱 경기장은 예전에 칼싸움했을 마당이 가운데 있고 그 둘레를 둥그렇게 관중석이 둘러쳐 있었습니다. 물론 실내 체육관이라 지붕이 덮여 있었지요. 이렇게 말하니 꼭 로마시대 검투사들의 혈투가 벌어지고, 광란하는 관중들이 가득 찬 콜롯세움이 연상됩니다. 어쨌거나 그날의 펜싱경기장 분위기는 칼싸움과는 눈썹 만큼의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 마당 한쪽에 커다랗게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마당의 나머지는 의자가 가로세로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행사장에 들어 선 순간 우리를 강타한 것은 후끈 하는 열기였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30여분 전이었는데도 관중석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열기였는지 아니면 따로 난방장치를 한 것인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연히 추우리라 생각하고 들어선 우리들의 피부엔 더운 열기가 가장 먼저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딱히 무슨 소리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온갖 소리들이 뒤섞여 바위 같은 묵직한 힘으로 고막을 지긋이 누르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와 장삼을 수(受)한 우리는 술하게 많은 시선을 의식하며 일렬로 나란히, 마승 비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여법(如法)하게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무대 앞 좌측 한 모퉁이에 모여 앉았습니다.

북소리를 신호로 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듣는 소리인데도 절이 아닌 실내에서, 그것도 1만여 명이 모인 행사장의 들뜬 열기를 뚫고 들려오는 북소리는 켜이나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조금 후 무대 옆, 그러니까 우리가 앉은 바로 맞은 편에서 고불총림 방장 서용 큰스님, 해인총림 방장 법전 큰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큰스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입장하였습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천천히 들어오시는 큰스님들을 뵈는 순간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지대방에서 한국 불교의 현실을 개탄하고 종단의 무능함을 성토했던 큰스님들을 향해 비판의 소리를 높이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큰스님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란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불총림 방장 서용 큰스님의 법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법문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고, 또 알아듣기도 힘들었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서도 간간히 ‘참사람’, ‘르네상스’, ‘프로이드’ 같이 귀에 익은 몇 마디 단어들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아마 ‘현대 서양문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이야말로 불교가 인류 문명을 구제할 대안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후반부 계송은 무슨 말인지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둥근 연꽃 같은 법상(法床)에 앉으신 스님의 단아한 모습과 스님을 비추던 조명, 그리고 스님의 또랑또랑하면서도 힘이 배어 있는 육성이었습니다. 법문을 시작하는 순간, 스님이 앉으신 법상이 커지면서 행사장을 꽉 채우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스님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그 힘은 직전까지 다소 혼란스럽고 어수선했던 행사장 내의 열기를 하나로 모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환희심 또는 자부심 같은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육법공양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의식으로 향·꽃·등·과일·청수·백미 등 여섯 가지 공양물로 장엄하여 전산화한

팔만대장경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정성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든 고려대장경 CD를 부처님 前에 바쳐 마침내는 모든 이들에게 이 대장경 CD를 보시하겠다는 청정한 마음을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하는 사사로운 중생심일랑 부처님 前에서 감로수로 깨끗이 씻어 없애고, 모든 이들과 함께 대장경 전산화 불사를 회향하고자 하는 모습에 가슴이 숙연해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게 바로 부처님의 힘, 불교의 힘이로구나! 이런 힘이 있었기에 이 땅의 불교가 갖은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의연하게 이어져 내려왔구나.”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하고도 내가 했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모두와 함께 나누어 가지는 무주상 보시의 마음, 나와 내가 없는 동체대비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나아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장엄한 의식으로 승화시켜 모든 이가 자기 일인 양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불교의 보이지 않는 저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티벳 스님들이 자기 나라를 강탈한 중국에 대해서 자비와 애정으로 대하는 것도 이런 힘이 바탕이 되었겠지요. 이렇듯 진정한 힘은 무아(無我)에서 비롯되는가 봅니다. 그 힘을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공 하나 하나로 오롯이 느꼈을 것입니다.

“능인 선원 왔습니까?”

“예!”

“인천 용화사 왔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나오는 그 대답들 속에는 뭐랄까 자부심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그런 기분 경험해본 적 있습니까? 그 때 우리들 기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제 살을 깎아 내리던 어리석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슴으로 확인하고서 나오는 자신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미 사방은 캄캄하여 앞서가는 차 쾅무니의 빨간 불빛만 새까만 어둠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강행군,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창밖도 먹칠한 듯 캄캄하고, 차안 역시 어둡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다만 의자에 기대어 잠든 도반 스님들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들 뭔가 하나씩 가슴에 담은 게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조금은 다른 일상이 될 거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 산사(山寺)의 작은 음악회

인성(仁星) / 사집

참으로 별일이다. 산중에서 무슨 음악회를 한다고 이렇게 난리일까?  
조금은 의아해하며 음악회가 열리기로 한 사자루로 갔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30여명의 재가자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강원  
학인 스님들과 사중의 소임자 스님들을 합해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보성 대원사 주지이신 현장 스님께서 오늘의 행사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주셨다.

“나왕 케촉 선생의 음악회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정부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불허함에 따라 단독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KBS홀에서 공연을 가졌고, 오는 23일 출국하게 될  
나왕 케촉 선생께서 한국의 큰 사찰을 참배하고 그곳의 큰스님과 정진 중인  
대중스님들을 만나 함께 음악회를 갖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평화사상을 나누고  
싶다는 뜻에서 결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송광사 주지 스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오늘 세계적인 음악가 나왕 케촉 선생이 송광사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5월 달라이라마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시기로 예정되었다가 무산되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나왕 케촉 선생께서  
당신의 음악을 통해 달라이라마께서 전하지 못한 평화의 사상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시인 류시화씨가 나왕 케촉을 소개했다.

“저는 오늘 나왕 케촉 선생께서 연주회를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분이 우리나라에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지만 선생은 단연 뉴에이지 음악, 명상음악가 중 선두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티벳하면 떠오르는 염불·주력 등의 민속음악을 10여 년 간의 승려생활에서 우러난 혼을 담은 소리로 바꾸어 내는 연주가인 이분의 명상음악을 두고 어떤 이는 ‘이 음악을 한 시간 듣는 것이 몇 년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극찬했고, 저 또한 4년 전 미국에서 ‘Winds of Devotion’을 구해 들은 이후로 아침마다 이 분의 음악을 듣지 않으면 목이 칼칼할 정도로 좋아하던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나왕 케촉 선생의 연주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록달록 꽃무늬가 새겨진 티벳의 전통의상을 입고 마이크 앞에서 선 연주는 ‘안녕하세요’ 하며 서투른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네고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밝게 웃었다. 합장배례(合掌拜禮)로 시작을 알리고는 우리들을 침묵 속으로 이끌어들이었다.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시작한 첫 번째 연주곡은 여인의 흐느낌을 떠오르게 하는 애잔한 피리소리였다. 우리나라의 통소 소리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 곡은 잔잔히 흐르다 솟구치고 어느새 꺾여져 내려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피리를 개량했다는 짙은 피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두 번째 곡은 서부영화 ‘황야의 무법자’를 떠올리게 하는 경쾌한 리듬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었다. 깊은 밤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소쩍새 울음소리 같은 한 맺힌 소리는 어느새 비명과도 같은 절규로 마무리되고.

호주 원주민들의 악기인 Didgeridoo를 티벳의 염불법으로 연주한 세 번째 곡은 피기스러운 울림이었다. 어둠의 성질과 지하의 느낌을 형상화했다는 연주자의 설명이 있기 전에 한 스님은 그 음악을 들으며 죽음을 연상했다.

클라리넷처럼 맑고 굽직한 소리가 나는 네 번째 곡은 잔잔히 흐르는 선율로 평화로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곡이었다. 라디오 볼륨을 줄이는 것처럼 끊어질 듯 이어가는 마무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염원 담긴 굽직한 저음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시키며 이어진 다섯 번째 곡의 악기는 네 번째 것보다 더 길어서인지 음색이 더욱 깊었다. 저물 녘, 잔잔히 흐르는 강물 위로 은빛 여울이 반짝이다가 어느새 노을 속으로 잠들고, 이어서 찾아오는 밤의 적막감은 거센 바람소리로 표현되고 있었다.

여섯 번째 곡은 2m는 족히 넘어 보이는 긴 나팔소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뱃속에서 우러나는 울림소리. 짙은 짙은 끊어지는 소리는 웬지 다급해 보였다. 신비스러운 고음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굽직한 울림소리로 변화하는 그의 목소리는 진정 하나의 악기였다.



‘바람과 울림의 조화’. 그의 음악 속에는 티벳 고유의 염불법과 그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이렇게 큰절에서 초청해서 음악회를 갖게 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공연한 것이 한국에서의 일정 중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국 스님들이 제 음악의 좋은 감상자가 될 수 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크게 들릴 만큼의 침묵으로 감상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음악회가 더욱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엔 확신을 가지고 달라이라마께서 이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조국에 두고 온 동포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중국 정부에 많은 것을 양보하시어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도 좋다. 티벳인의 자치를 보장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라이라마의 사진 한 장 가진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야 하는 억압받는 우리의 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티벳의 자유를 찾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곳 한국에 와서 발견한 사실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세음보살님께 염송하는 게송 ‘옴 마니 반메훬’을 이곳에서도 지송(持誦)하는 것을 보고 보살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관세음보살’을 염송 해주시면 제가 ‘옴 마니 반메훬’을 외며 피리를 불겠습니다.”

그의 요구에 따라 대중들이 함께 ‘관세음보살’을 화창(和唱)하고, 그는 잠시 ‘옴 마니 반메훬’을 염송하더니 이내 피리를 불었다. 100명의 대중이 품어내는 웅장한 염불소리와 어우러진 가녀린 피리의 조화는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가슴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다.

생김새나 사용하는 언어·문자 등은 비록 다를 지라도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하나될 수 있었던 산사의 작은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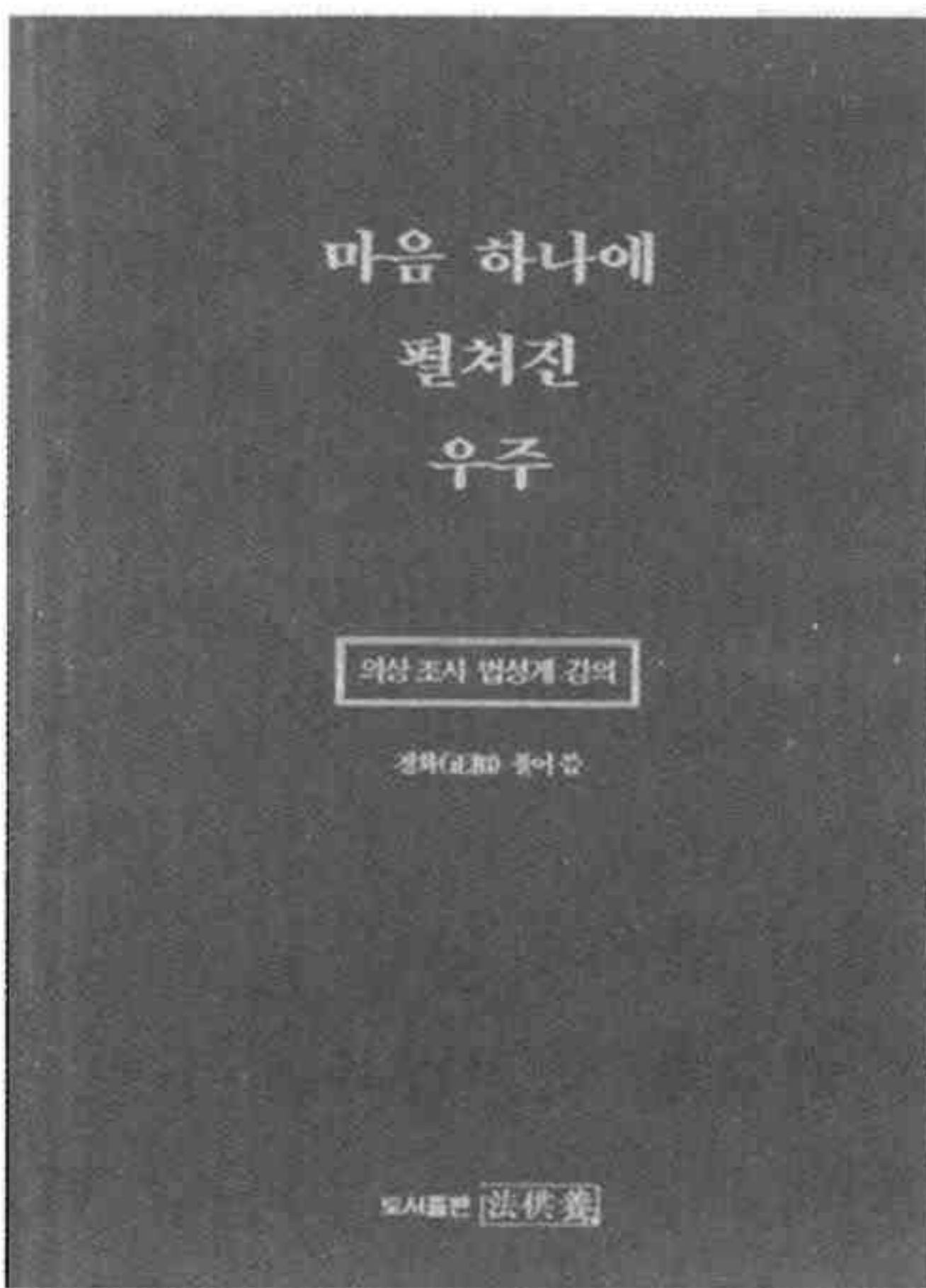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 칭송 받고 있는 평화의 메신저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성사되는 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왕 케축의 음악을 다시 듣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품은 채 산사는 다시 고요 속에 잠든다.

##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의상조사 범성계 강의-

정화(正和) 풀어 씬

(도서출판 범공양 刊, 값 5,500원)



뜰 앞에 핀 꽃 한 송이  
우주 법계의 얼굴이 되어서  
피어 있습니다  
법계의 모든 질서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있었지요  
꽃이 피면서 법계의 인연은  
꽃이 된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지요  
마음자리 하나에 법계가 열리며  
우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께서 『범성계』를 지어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화엄경』을 210자의 시로 그 뜻을 다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마음자리 하나에 핀 꽃의 장엄이 『화엄경』으로 묘사됐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라 하셨습니다. 화엄은 꽃의 장엄으로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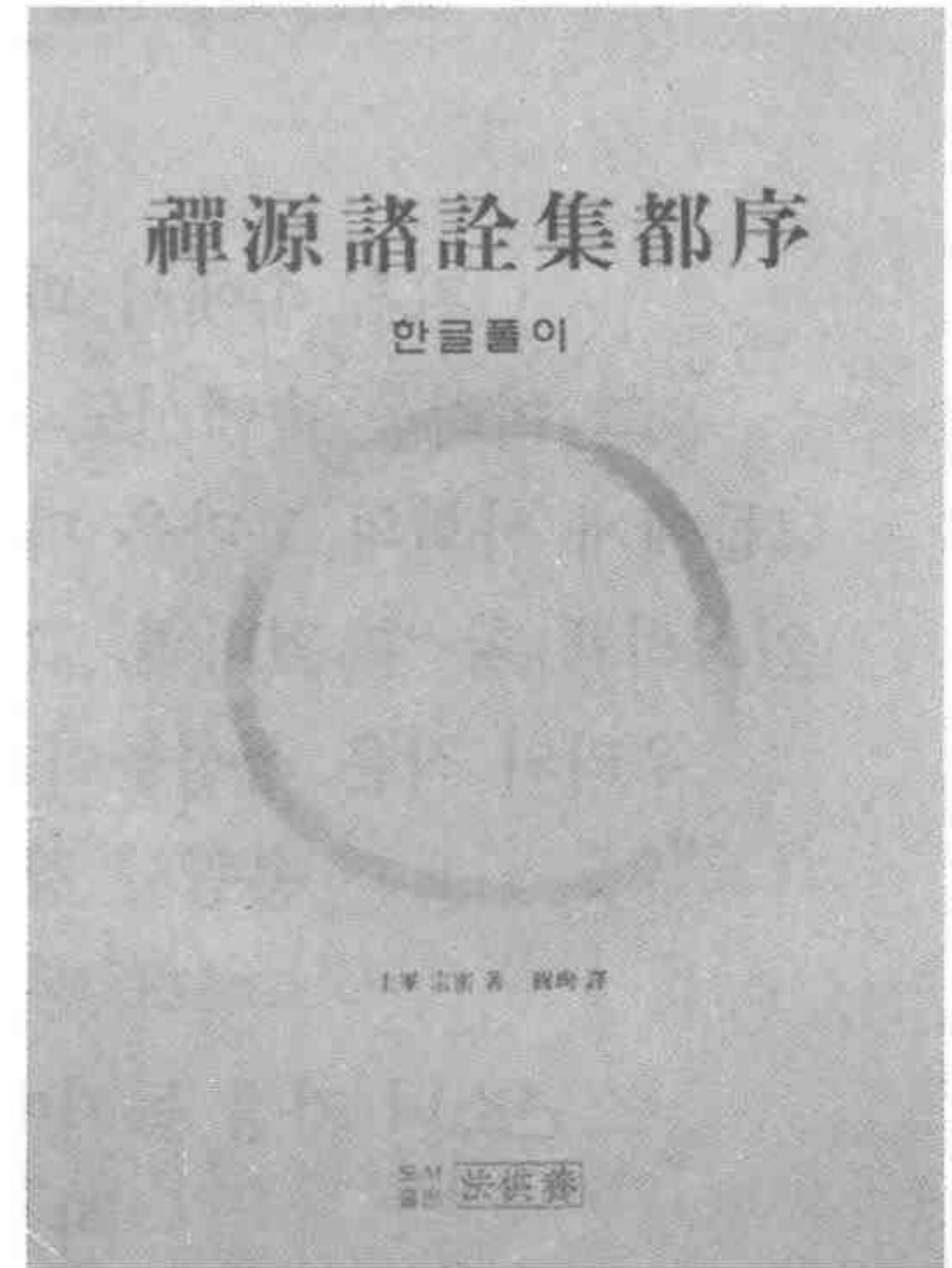
마음은 화가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중생과 부처님은  
마음자리 하나에 그렇게 있네

이것이 화엄의 가르침이며 지금 여기의 우리 모습입니다. 중생과 사물 모두는 중심이면서 주변으로 주인이면서 손님으로 서로를 살리는 한생명으로 있습니다. 우주법계의 부처님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의 얼굴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은 삶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임을 사무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된 온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자리 하나 지켜보는 데서 뜻대로 여의 보배를 잡아 지혜와 자비가 실천될 때, 꽃으로 장엄된 법계의 얼굴인 『화엄경』이 날마다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서 날마다 맑고 고요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법계를 장엄하시기를 바랍니다.

# 禪源諸詮集都序

한글풀이

규봉 종밀 저 / 원순 역



『도서』는 수백년 동안 강원에서 공부해 왔고, 지금도 대다수의 비구 비구니 강원에서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불교의 제이론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개론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도서』는 선(禪)과 교(敎)의 전체적인 내용을 삼교(三敎)와 삼종(三宗)으로 정리하여 일심(一心)으로 회통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왔고, 그 말씀과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기에 선(禪)과 교(敎)도 일치되어야 합니다.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선심(禪心)을 지녀야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禪)과 교(敎)가 회통(會通)되어 선교일치(禪敎一致)가 됩니다.

『도서』는 이런 입장에서 자기가 익힌 습(習)에 의해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공종(空宗)과 성종(性宗)의 열 가지 다른 점과 돈(頓)과 점(漸)의 내용 및 미십중(迷十重)과 오십중(悟十重)의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 돈오돈수(頓悟頓修)

어떤 사람은 “돈오돈수(頓悟頓修)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최상의 지혜를 지닌 자가 도(道)를 깨달고자 하는 근성(根性)과 도(道)를 닦으려는 욕구가 함께 수승하여, 하나를 듣고 천 개를 깨달아서 대총지(大總持)를 얻어 한 생각도 일으키지를 앓았다면 전후의 모든 망상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 돈오점수(頓悟漸修)

어떤 사람은 “먼저 모름지기 돈오(頓悟)해야 점수(漸修)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해오(解悟)를 기준삼아서 하는 말입니다.

법에는 돈(頓)·점(漸)의 차이가 없는데 중생의 근기에 맞추니 돈(頓)·점(漸)의 차이가 있게 된다.

-본문 중에서-

##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역경,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의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함께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할 가치 있음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 모두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그동안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새로운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1-001097    ©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540-930) 송광사 강원 능원 (061) 755-5302

### ♣ 강의(특강) 테이프 보급

우리 송광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특강)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으시기 바랍니다.

- 카세트 TAPE ... 법화경 1~2                    (33개) 지운 스님 / 48,000원
- 인도철학    (18개) 정연 스님 / 25,000원
- 차 이야기    (17개) 용운 스님 / 25,000원
- 유식 30송 (교재포함) (11개) 정화 스님 / 25,000원
- 중론    (23개) 정화 스님 / 30,000원
- 도덕경 (교재포함) (16개) 혜거 스님 / 23,000원
- 비디오 TAPE ... 영성의 불교적 이해 (1개) 지운 스님 / 7,000원
- 설법하는 법 1~4                                (4개) 진옥 스님 / 30,000원

■ 구입처 : 송광사 강원 서기 ☎ (061)755-5302    ※ 전화주문도 받습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0660-01-000289 (가입자 : 송광사 서기)

※ 강원 사정으로 인하여 '금강경 오가해' 테이프를 반납받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 구입한 '금강경 오가해' 테이프를 반납해주시는 분께는 테이프값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본 테이프의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 심장병 환자 돕기 후원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들, 고통받는 자·병든 자를 위하여 아파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 가진 것이 없어도 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존의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자비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보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온갖 종류의 고통 속에서 아픈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빈곤, 외로움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약 받지 못한 생명을 아픔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을 되찾아 준다면 우리사회는 아름답고 살아 불만한 가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송광사 강원에서는 한국심장재단과 결연하여 심장병 환자 돕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푼푼이 모은 작은 사랑의 손길로 새 생명을 찾아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볼 때, 이러한 성금 모금운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새 생명을 찾아줄 후원자나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장병 환자 돕기 후원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9. 9. 21	1차 환자 지원
2000. 2. 8	2차, 3차 환자 지원
2000. 3. 28	4차, 5차 환자 지원
2000. 4. 4	6차 환자 지원
2000. 5. 23	7차 환자 지원
2000. 6. 27	8차 환자 지원
2000. 9. 5	9·10·11차 환자 지원
2000. 12. 12	12차 환자 지원

현재(2000. 12) 12명의 지원 환자 중 5명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66-02-058950 ● 예금주 : 김 홍 제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 보월 (061)755-5302

☞ 직접 결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207호

총무과 황영옥 과장 (☎ 02-416-8763)

## 편집후기

어느새 한 달,  
다른 때보다 비교적 조용히  
끝났다.  
혹시 전보다 힘을 덜 쏟은 건  
아닌지.....  
원고 모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응해 준  
도반 스님들께 고맙고,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 준  
소임자 스님께도 고맙고  
군소리 없이 잘 따라 준  
편집실 식구들에게 더더욱  
고맙다.  
모두에게 기억될 만한  
'정혜사'이고 싶다.

### ❖지 이야기

초겨울, 오후의 햇살이  
따갑다.  
하룻밤 사이 소금물에 푹  
숙죽은 배추를 흐르는  
산골 시린 물로 씻어내고  
넓은 평상에 척척 걸쳐 물  
빠지길 기다리니  
정갈한 이의 손길 닿아  
맛난 김치 되었구나.

연한 땀방울 배어 있는  
스님의 미소가 초겨울  
햇살보다 더욱 다사롭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광명, 이영숙, 김갑숙, 류인석, 장은정,  
은현미, 오선희, 남봉순, 일국, 오무순, 김미화

### 대중 보시 하셨습니다.

향적스님 49재, 부산 관음사, 열린마음 범우회, 대구 관  
음사, 서울 약수암, 길상사, 원각사, 다보사, 황수다라,  
본연스님, 회주스님, 함재정(강성우)

### 강원 발전기금 도와주셨습니다.

박금희, 호국청원사, 호국용마사, 박대선행,  
전주 서고사, 성산 영월암, 윤태환, 채상재,  
자인화, 수순행, 봉은사 주지스님, 진옥 스님  
광양·마산·창원·부산·광주 강원후원회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호평과 질책으로 힘을  
얻습니다. 아직은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정혜사에 보내주  
시는 불자님들의 따뜻한 시선이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작은 정성이 더해진다면 더욱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  
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6-00446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내 정혜사 편집실 ☎ (061)755-5302

■ 주소가 바뀌신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의 맑은 물이 흐르다 머무는 송광사 전통강원에서는  
보조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戒·定·慧 삼학의 실천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길을 같이 갈 도반 스님을 찾습니다.

## 신입 및 편입방부 안내

2545년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 및 편입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 방부받는 반

치문반 .....	신입	00 명
사집반 .....	편입	0 명
사교반 .....	편입	0 명

### ■ 자 격

- 치문반 : 신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사집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사교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 제출서류

방부원서 .....	2부(강원 소정양식)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승적사본 .....	1부
승려증 사본 .....	1부
전학증, 수료증(편입생) .....	1부
사 진(3×4) .....	3매
건강진단서 .....	1부
방부금 .....	20만 원

-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만의가사(사미),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방부기간 : 불기 2545년 3월 15일 ~ 4월 15일
-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 (061) 755-5302

松廣寺 傳統講院



前朝때는 國泰民安 國祚無窮 祈願트니  
 而今은 伽藍復舊 千日祈禱 法堂일세  
 두어라 오늘도 다시 하마한들 버리시라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중에서 -

## 觀音殿

사방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1903년에 고종 황제의 성수전(聖壽殿)으로 지어졌으나 1955년 지금의 관음전으로 바뀌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